제118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제117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 차례

총회본부/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 4

총회본부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 6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 7

제117년차 총회 주요 사업 보고 ····· 53

▮장년세대 부흥 프로젝트 보고 ····· 53

▮다음세대 부흥 프로젝트 보고 ····· 62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 66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 구호 모금 결과 보고 ····· 별지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총무실	문창국 총 무	1001	교단행정 총괄
	정한초 팀 장		총무실 총괄, 인사위
선교국 국내(9F) / 해외(8F)	송재흥 국 장	1041	선교국 총괄
	손주헌 팀 장	1038	해외선교 부총괄 및 권역행정
	김상균 팀 장	1023	국내선교, 북한선교 행정 및 재정
	전영욱 팀 장	1024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OMS
	류호준 간 사	1036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성결연맹
	정구성 간 사	1093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및 교육
	신문섭 간 사	1032	선교국 행정
	김희경 사무간사	1034	해외선교 재정
	윤주희 사무간사	1033	선교국 재정
	안예은 사무간사	1021	국내선교 행정 및 재정
	▌항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의 회 부 서: 선교부(경목단, 교목단, 사회선교단), 군선교부(군목단), 농어촌부		
선교국 교회진흥원 (9F)	곽은광 원 장	1199	진흥원 총괄, 대외업무
	장은석 팀 장	1026	행정, 재정, 교회개척훈련원
	석성규 전문위원	1027	성장·증식 플랫폼사역
	문한별 전문위원	1028	코칭 플랫폼 사역, 재정, 대여금
	안효성 전문위원	1029	파송, 북한선교, 행정, OMS
교육국 (7F)	강형규 팀 장	1062	교육국 총괄, 개발, 출판
	조미정 팀 장	1052	행정, 재정, 장학회, 문준경, 유통
	안용환 팀 장	1054	홈페이지, 보급, 유통, 스토어
	강영아 간 사	1066	교육과정, 청소년, 교재편집
	권미경 간 사	1053	디자인, 출판, 교회음악부, 성청
	하수진 간 사	1055	행사, 단행본, 디자인
	장주한 간 사	1063	여름교재, SNS, 이대위, 신학교육
	김남선 간 사	1065	교재개발, SNS, 홈페이지, 전도플랫폼
	이재훈 간 사	1067	교재개발, 여름교재, 교육영상
	육준수 간 사	1051	사랑마루, SNS, 기타행정 및 재정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총무실	문창국 총 무	1001	교단행정 총괄
	정한초 팀 장		총무실 총괄, 인사위
선교국 국내(9F) / 해외(8F)	송재흥 국 장	1041	선교국 총괄
	손주헌 팀 장	1038	해외선교 부총괄 및 권역행정
	김상균 팀 장	1023	국내선교, 북한선교 행정 및 재정
	전영욱 팀 장	1024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OMS
	류호준 간 사	1036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성결연맹
	정구성 간 사	1093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및 교육
	신문섭 간 사	1032	선교국 행정
	김희경 사무간사	1034	해외선교 재정
	윤주희 사무간사	1033	선교국 재정
	안예은 사무간사	1021	국내선교 행정 및 재정
	▮항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의 회 부 서: 선교부(경목단, 교목단, 사회선교단), 군선교부(군목단), 농어촌부		
선교국 교회진흥원 (9F)	곽은광 원 장	1199	진흥원 총괄, 대외업무
	장은석 팀 장	1026	행정, 재정, 교회개척훈련원
	석성규 전문위원	1027	성장·증식 플랫폼사역
	문한별 전문위원	1028	코칭 플랫폼 사역, 재정, 대여금
	안효성 전문위원	1029	파송, 북한선교, 행정, OMS
교육국 (7F)	강형규 팀 장	1062	교육국 총괄, 개발, 출판
	조미정 팀 장	1052	행정, 재정, 장학회, 문준경, 유통
	안용환 팀 장	1054	홈페이지, 보급, 유통, 스토어
	강영아 간 사	1066	교육과정, 청소년, 교재편집
	권미경 간 사	1053	디자인, 출판, 교회음악부, 성청
	하수진 간 사	1055	행사, 단행본, 디자인
	장주한 간 사	1063	여름교재, SNS, 이대위, 신학교육
	김남선 간 사	1065	교재개발, SNS, 홈페이지, 전도플랫폼
	이재훈 간 사	1067	교재개발, 여름교재, 교육영상
	육준수 간 사	1051	사랑마루, SNS, 기타행정 및 재정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항존위원회: 고시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의 회 부 서: 교육부, 청소년부, 교회음악부		
사무국 기획정무 (2F)	송우진 국 장	1014	사무국 총괄
	박지훈 팀 장	1013	기획정무 총괄, 임원회, 대외, 재판
	박양우 팀 장	1012	헌연위, 선관위, 법제부
	김효진 간 사	1011	기획정무팀 행정, 재정
	▌항존위원회: 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의 회 부 서: 공천부, 법제부		
사무국 행정민원 (1F)	윤기중 팀 장	1075	행정민원 총괄, 심리, 서무, 통제
	이철주 간 사	1074	행정, 전산, 전자문서, 포상
	노은아 간 사	1073	감사, CTS, 물품, 지방회 문서
	이현정 간 사	1072	직인, 인사카드, 발급
	▌항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의 회 부 서: 심리부, 서무부		
평신도국 (6F)	이재동 국 장	1096	평신도국 총괄, 성결원
	김효종 팀 장	1099	평신도부, 사회복지부, 성결원
	조한나 사무간사	1100	재정, 평신도부, 기관재정
	유길현 사무간사	1098	행정, 사회복지부, 기관행정
	▌의 회 부 서: 평신도부, 복지사업부		
경리과 (2F)	지선화 과 장	1106	경리업무 총괄
	한송이 간 사	1101	총회부분 담당
	이예솔 사무간사	1102	선교부문 담당
	홍가영 사무간사	1104	교육부문 담당
유지재단	은호영 팀 장	1112	행정총괄
	박주빈 사무간사	1111	행정
총회교육원	김요한 간 사	1122	총회교육원 총괄
교역자공제회	김진규 국 장	1165	교역자공제회 총괄
	문성선 간 사	1163	행정, 재정 총괄
	이유미 사무간사	1161	행정, 재정
성결회관	이영숙 간 사	1002	성결회관 행정, 재정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전도사 승인부터 목사안수까지

전도사 승인 ▶	전도사 교육 ▶	목사 고시 ▶	목사안수청원 ▶	총회 심리부 ▼ 고시위원회 ▼ 성결인대회 (목사안수식) ■ 매년 4월 초
해 지방회	총회교육원	교육국	사무국	
헌법 ■ 제42조 2항 ■ 제50조 1항 ■ 제61조 2항 다호, 바호 ■ 제63조 5항	**헌법** ■ 제76조 4항 마호	**헌법** ■ 제43조 2항 ■ 제75조 1항 7호	**헌법** ■ 제75조 2항 마호, 바호	
시행세칙 ■ 제8조 5항	**시행세칙**	**시행세칙** ■ 제6조	**시행세칙** ■ 제6조	
	총회교육원 운영규정 ■ 제16조	**총회본부 처무규정** ■ 제14조 1항 4호	**총회본부 처무규정** ■ 제15조 1항 나호	
문서서식 ■ 3-12 ■ 3-12-1 ■ 3-13 ■ 8-1		**문서서식** ■ 8-3 ■ 8-19	**문서서식** ■ 3-15 ■ 3-17-1 ■ 3-18-1 ■ 8-2	
일정 ■ 2024년 2월 정기지방회	**일정** ■ 후보자교육: 12월 ■ 전도사 교육: 연2회/총3회	**일정** ■ 매년 4월 중	**일정** ■ 접수: 2월 말 ■ 면접: 3월 중 ■ 영성훈련 및 최종 면접: 3월 중	

▌각종 증명서 발급

사무국 발급 서류

■ 안수증명서(8-18) ■ 재직증명서(8-19)
■ 경력증명서(8-20) ■ 소속증명서(8-21)
■ 추천서(8-22, 23) ■ 은행제출용 서류

유지재단 발급 서류

■ 관공서 제출용 서류 일체
■ 은행 제출용 서류

교역자공제회 발급 서류

■ 연금가입 증명서
■ 연금완납 증명서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현황 분석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우리 교단은 매년 지교회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사무총회를 거쳐 정기지방회에 〈교세통계표〉의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방회는 이를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 우리 교단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세통계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은, 지 교회의 발전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성결교회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교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확하게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본부가 분석하여 보고하는 한국 사회의 종교 현황과 교단의 현재 분석을 충실히 읽고 살핀다면 지교회의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지교회에서 보고한 교세통계표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한계점은 분석에 있어 교단의 〈교세통계표〉가 지교회와 지방회의 보고 내용만을 집계한 것으로 정확도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으며, 총회비 산정 기준의 변화가 각 교회의 교세 보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교세의 변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교단의 교세변화는 아래의 〈표15〉와 같다. 2013년 2,716개였던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2023년 현재 2,916개로 2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기간 교인수는 552,671명에서 385,727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제108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교회학교 학생수는 107,098명에서 58,923명으로 줄었다. 2023년 교세통계 보고에는 교회학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향후 데이터가 쌓이면 보다 세밀한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도별 교회,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연도	교회수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2013	2,716교회	355,243명	89,283명	107,098명	552,671명
2014	2,753교회	355,047명	86,747명	104,620명	548,110명
2015	2,793교회	319,914명	77,045명	93,532명	491,397명
2016	2,813교회	302,226명	73,627명	85,661명	461,514명
2017	2,858교회	301,048명	69,013명	84,392명	454,453명
2018	2,845교회	296,178명	61,472명	81,645명	439,295명
2019	2,886교회	292,955명	60,129명	77,844명	430,928명
2020	2,897교회	283,361명	46,462명	69,358명	399,181명
2021	2,893교회	282,172명	46,211명	62,581명	390,964명
2022	2,895교회	280,861명	46,373명	59,434명	386,668명
2023	2,916교회	280,093명	46,757명	58,923명	385,727명
2023-2013	200교회	-75,150명	-42,526명	-48,175명	-166,944명
연평균	17교회	-6,263명	-3,544명	-4,015명	-13,912명

가. 교회수 변화

11년간 200개의 교회가 늘어 매년 평균 17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111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에 보고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32개 교회에 비해 5개 교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7년에 45개의 교회가 늘어 가장 많은 수가 늘었으며 2019년과 2015년에는 각각 41개와 40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반면 2018년도에는 13개의 교회가 줄었으며 2021년에도 4개의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8개 지방회이던 서울지역은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2022년 서울지방회가 새롭게 분리되어 10개 지방회로 늘어났으며, 2013년 592개였던 교회수가 2023년 614개 교회로 22개 교회가 늘어 연평균 2.0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 동 기간 분지방한 서울중앙지방회-서울제일지방회, 서울북지방회-서울지방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방회는 연평균 0.6개 교회의 서울강남지방회로 11년간 7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표2〉 서울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서울중앙	106	107	112	112	77	75	75	75	72	71	73	-33	-3.0
서울동	46	51	51	51	52	51	51	49	47	46	48	2	0.2
서울서	103	102	101	102	102	103	108	108	107	108	107	4	0.4
서울남	71	76	76	77	77	76	72	71	71	70	70	-1	-0.1
서울북	90	90	92	91	94	96	94	97	98	45	44	-46	-4.2
서울강서	82	80	82	76	78	78	81	81	79	77	79	-3	-0.3
서울강남	61	60	63	63	63	65	65	63	63	65	68	7	0.6
서울강동	33	33	29	30	32	32	33	34	34	34	33	0	0.0
서울제일					38	41	40	41	42	39	39	1	0.1
서 울										52	53	1	0.1
합 계	592	599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22	2.0

※ 서울제일지방회와 서울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 동안 경인지역은 부흥지방회가 2017년도에 새로 분리되어 7개 지방회로 늘었으며 310개였던 교회 수가 357개로 47개 교회가 늘어 연평균 4.3개 교회씩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기간 분지방된 부천과 부흥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방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방회는 연평균 1.2개씩 개척된 것으로 보고한 인천남지방회이며 인천서지방회가 1.1개 교회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3〉 경인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인천동	67	67	68	67	69	42	69	69	72	71	71	4	0.4
인천서	51	51	57	60	61	61	63	63	64	63	63	12	1.1
인천남	43	44	46	46	50	50	50	52	53	55	56	13	1.2
인천중앙	48	49	48	48	49	46	47	49	48	49	54	6	0.5
부 천	59	59	58	57	39	39	36	35	35	35	35	-24	-2.2
경 인	42	41	44	43	43	42	43	43	42	43	45	3	0.3
부 흥					30	36	38	37	34	34	33	3	0.3
합 계	310	311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47	4.3

※ 부흥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경기지역은 2013년 272개 교회에서 2023년 304개 교회로 32개 교회 연평균 2.9개 교회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가장 많은 교회가 늘어난 지방회는 17개 교회가 늘어난 경서지방회로 연평균 1.5개씩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경기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경기동	44	44	45	45	44	45	46	47	47	48	49	5	0.5
경기중앙	35	39	43	46	50	50	47	47	44	42	41	6	0.5
경기남	66	67	68	68	67	66	66	67	68	67	66	0	0.0
경 기	51	51	51	50	50	51	54	56	53	53	54	3	0.3
경기서	45	47	46	47	46	46	49	48	46	47	46	1	0.1
경 서	31	32	34	34	36	37	36	38	40	45	48	17	1.5
합 계	272	280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2	2.9

강원지방회가 신설된 강원지역은 2013년 133개 교회에서 2023년 141개 교회로 동기간 8개 교회, 연평균 0.7개씩 교회가 늘었다. 강원동지방회는 동기간 교회수의 변화가 없었으나 강원서지방회와 강원지방회가 분리된 2017년 이후만을 비교하면 강원동지방회는 1개 교회가 줄었고, 강원서 지방회는 1개 교회가 늘었다. 반면 분지방회인 강원지방회는 4개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5〉 강원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강원동	47	47	47	47	48	47	46	46	46	48	47	0	0.0
강원서	86	86	87	89	50	49	50	50	51	51	51	-35	-3.2
강 원					39	39	39	41	41	43	43	4	0.4
합 계	133	133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8	0.7

※ 강원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충청지역은 교단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다. 2013년도 충청지역의 교회수는 598개로 서울지역의 592개보다 6개가 많았다. 2023년도에는 연평균 2.6개 교회씩 총 29개 교회가 늘어나 626개 교회가 충청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서울지역과의 격차를 13개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

청지역의 교회 수 성장세는 정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방회와 충청지방회는 미세하게 역성장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종공주지방회만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였다.

〈표6〉 충청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충 북	42	42	44	45	44	44	44	43	42	42	40	-2	-0.2
청 주	69	69	71	74	73	74	72	71	71	71	71	2	0.2
충 청	59	59	59	60	60	59	59	58	57	57	56	-3	-0.3
충 서	101	103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6	5	0.5
충서중앙	59	59	59	59	59	59	59	61	61	61	61	2	0.2
대전동	68	69	70	70	71	72	73	72	71	69	71	3	0.3
대전서	48	48	49	48	48	48	48	48	49	49	49	1	0.1
대전중앙	45	47	48	49	49	50	50	50	50	50	50	5	0.5
충 남	67	68	70	68	68	69	68	69	69	69	69	2	0.2
세종공주	40	41	43	45	47	49	50	50	51	52	54	14	1.3
합 계	598	605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29	2.8

호남지역은 충청지역과 서울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2013년 423개 교회에서 연평균 4개씩 늘어나 2023년 현재 462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회 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4.3개로 보고된 경인지역에 이어 두 번째이다.

〈표7〉 호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전 북	46	46	49	50	53	53	52	51	52	50	49	3	0.3
전 주	50	53	53	53	53	55	55	57	58	60	61	11	1.0
전북중앙	36	37	36	36	38	37	36	37	37	37	36	0	0.0
군 산	45	47	47	49	51	52	52	52	53	52	52	7	0.6
전남동	47	52	51	54	53	53	54	54	55	55	56	9	0.8
전남서	66	67	67	68	69	70	70	69	71	71	73	7	0.6
광 주	30	31	31	32	32	32	32	32	32	32	32	2	0.2
전 남	36	36	37	35	36	36	37	37	35	36	37	1	0.1
전남중앙	34	29	28	30	29	25	27	27	26	28	31	-3	-0.3
광주동	33	33	35	37	37	42	42	43	43	41	40	7	0.6
합 계	423	431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4	4.0

호남지역 중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인 곳은 전주지방회로 매년 1개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전남중앙지방회는 동 기간 3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은 2013년 369개 교회를 보고하였으며 2023년에는 16개 교회가 늘어난 385개 교회를 보고하여 연평균 1.6개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영남지역 역시 교회 수 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산동지방회는 동 기간 2개 교회가 줄어들어 영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역성장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8〉 영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경 북	46	46	46	49	49	49	49	49	49	49	50	4	0.4
대 구	39	40	39	39	40	40	42	42	41	42	42	3	0.3
경북서	59	60	60	61	61	61	61	61	61	62	62	3	0.3
부산동	34	35	35	35	35	33	33	33	33	32	32	-2	-0.2
부산서	46	47	47	48	49	49	50	50	50	49	48	2	0.2
경 남	47	48	49	49	49	49	50	51	52	51	51	4	0.4
경남서	65	67	68	66	66	66	66	66	66	66	66	1	0.1
울 산	33	32	32	32	32	32	33	33	33	33	34	1	0.1
합 계	369	375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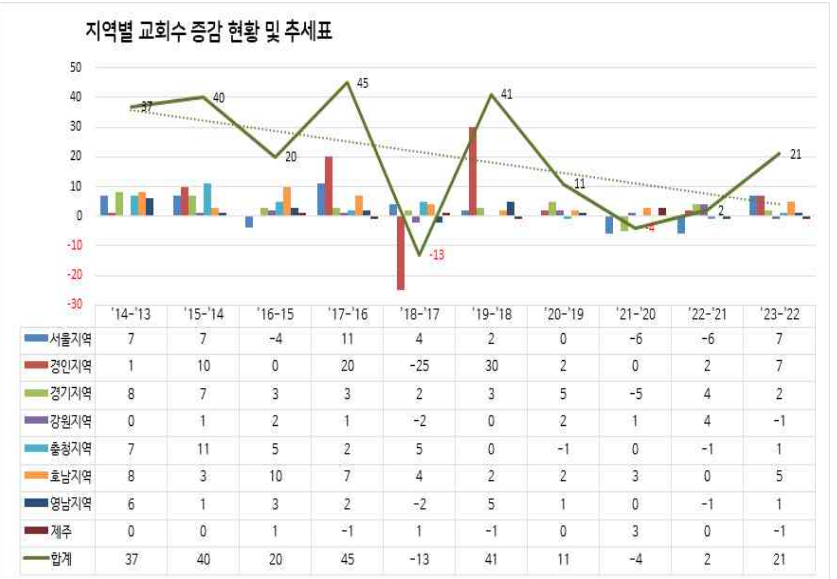
제주지역은 2013년도 19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어난 21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2023년 현재 보고되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11년간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200개 교회 7.4%p 증가하였는데 가장 많은 교회가 늘어난 곳은 47개의 경인지역이며 그 뒤를 44개의 호남지역과 32개의 경기지역이 따르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5.2%p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11.8%p의 경기지역과 10.5%p의 제주지역이 따르고 있다.

가장 많은 교회가 늘어난 지방회는 경서지방회로 동 기간 17개의 교회가 늘었으며 세종공주지방회가 14개, 인천남지방회와 인천서 지방회가 각각 13개와 12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경서지방회는 54.8%p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고, 세종공주지방회와 인천남지방회, 인천서지방회도 각각 35.0%p, 30.2%p, 23.5%p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단 전체로 교회 수 증가 속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9〉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13	평균	증가비중
서울	592	599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22	2.0	3.7%
경인	310	311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47	4.3	15.2%
경기	272	280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2	2.9	11.8%
강원	133	133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8	0.7	6.0%
충청	598	605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29	2.6	4.8%
호남	423	431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4	4.0	10.4%
영남	369	375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16	1.5	4.3%
제주	19	19	19	20	19	20	19	19	22	22	21	2	0.2	10.5%
합계	2,716	2,753	2,793	2,813	2,858	2,845	2,886	2,897	2,893	2,895	2,916	200	18.2	7.4%



	'14-'13	'15-'14	'16-15	'17-'16	'18-'17	'19-'18	'20-'19	'21-'20	'22-'21	'23-'22
서울지역	7	7	-4	11	4	2	0	-6	-6	7
경인지역	1	10	0	20	-25	30	2	0	2	7
경기지역	8	7	3	3	2	3	5	-5	4	2
강원지역	0	1	2	1	-2	0	2	1	4	-1
충청지역	7	11	5	2	5	0	-1	0	-1	1
호남지역	8	3	10	7	4	2	2	3	0	5
영남지역	6	1	3	2	-2	5	1	0	-1	1
제주	0	0	1	-1	1	-1	0	3	0	-1
합계	37	40	20	45	-13	41	11	-4	2	21

그렇다면 최근 3년간 교회 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1년 보고된 우리 교단 국내 교회 수는 2,893개 교회이고 2023년은 2,916개 교회로 3년간 총 23개 교회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지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1개의 교회만 늘었는데, 동 기

간에 경인지역과 경기지역, 호남지역, 강원지역은 각각 9개, 6개, 3개씩 늘었다. 충청지역과 영남지역은 교회 수 변동이 없으나 제주지역은 1개 교회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최근 3년간 교회수 변화표

	2021	2022	2023	'22-'21	'23-'22	'23-'21
서울지역	613	607	614	-6	7	1
경인지역	348	350	357	2	7	9
경기지역	298	302	304	4	2	6
강원지역	138	142	141	4	-1	3
충청지역	627	626	627	-1	1	0
호남지역	462	462	467	0	5	5
영남지역	385	384	385	-1	1	0
제 주	22	22	21	0	-1	-1
합 계	2,893	2,895	2,916	2	21	23

지난 11년간 〈교세통계표〉에 보고된 교회수는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교회개척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회개척에 관한 전문기관 설립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척훈련 강화 및 개척지역에 관한 전략적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 교인 수 변화

그렇다면 교인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023년 〈교세통계표〉에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총 385,727명인 것으로 합산되었다. 2013년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552,671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166,944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3년도 교인 수의 30.2%p에 해당하는 비율로 연평균 13,912명씩 줄어들고 있다.

동기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교인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41,782명이 줄어들었었다. 반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지역은 경인지역으로 2013년에 비해 42.2%p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교인수가 각각 35,438명과 17,852명이 줄어든 것

이 눈길을 끈다. 이 두 해에는 전 지역에서 교인수가 줄었는데 제108년차 교단 총회(2014.05.27.~29.)에서 결의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11〉 연도별 교인수 변화표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3	176,209	62,483	55,628	20,927	102,238	76,104	56,667	2,415	552,671
'14	177,302	59,037	53,401	21,972	99,203	78,510	56,333	2,352	548,110
'15	167,338	48,883	40,844	19,337	94,560	64,707	53,582	2,146	491,397
'16	156,662	40,848	38,934	18,775	92,288	59,939	52,136	1,932	461,514
'17	151,083	44,132	36,818	18,628	90,241	59,286	52,383	1,882	454,453
'18	144,483	41,364	36,243	17,586	88,550	58,030	51,036	2,003	439,295
'19	140,570	40,442	35,682	17,903	88,207	57,058	49,036	2,030	430,928
'20	131,669	36,788	32,639	16,572	79,936	53,164	46,698	1,715	399,181
'21	130,979	37,144	31,241	16,215	79,243	50,103	44,307	1,732	390,964
'22	133,307	36,176	31,846	16,002	78,506	47,345	41,695	1,791	386,668
'23	134,427	36,084	32,350	16,022	77,349	47,121	40,709	1,665	385,727
증감	-41,782	-26,399	-23,278	-4,905	-24,889	-28,983	-15,958	-750	-166,944
평균	-3,482	-2,200	-1,940	-409	-2074	-2,415	-1,330	-63	-13,912
증폭	-23.7	-42.2	-41.8	-23.4	-24.3	-38.1	-28.2	-31.1	-30.2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서울제일지방회가 분할되었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서울지방회가 서울북지방회에서 분할된 점을 표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서울북지방회가 2013년도에 비해 73.8%p나 되는 교인 수가 줄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분할 지방회인 서울지방회는 2022년 보고된 교인 수 7,786명에 비해 2023년도 교인 수를 1,362명이 늘어난 9,148명으로 보고하여 2년간 17.5%p의 성장세를 보였다. 서울제일지방회도 2017년도 분할 지방 시 보고한 교인 수 11,714명에 비해 469명이 준 11,245명으로 보고하여 4.0%의 감소율로 다른 지방회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서울북지방회를 제외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지방회는 47.3%p가 감소한 서울동지방회로 동 기간 4,858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다. 그 뒤를 서울강남지방회가 45.1%p, 7,846명의 감소율을 보였다.

	'14-'13	'15-'14	'16-'15	'17-'16	'18-'17	'19-'18	'20-'19	'21-'20	'22-'21	'23-'22
서울지역	1,093	-9,964	-10,676	-5,579	-6,600	-3,913	-8,901	-690	2,328	1,120
경인지역	-3,446	-10,154	-8,035	3,284	-2,768	-922	-3,654	356	-968	-92
경기지역	-2,227	-12,557	-1,910	-2,116	-575	-561	-3,043	-1,398	605	504
강원지역	1,045	-2,635	-562	-147	-1,042	317	-1,331	-357	-213	20
충청지역	-3,035	-4,643	-2,272	-2,047	-1,691	-343	-8,271	-693	-737	-1,157
호남지역	2,406	-13,803	-4,768	-653	-1,256	-972	-3,894	-3,061	-2,758	-224
영남지역	-334	-2,751	-1,446	247	-1,347	-2,000	-2,338	-2,391	-2,612	-986
제주	-63	-206	-214	-50	121	-121	-167	17	59	-126
합계	-4,561	-56,713	-29,883	-7,061	-15,158	-8,515	-31,599	-8,217	-4,296	-941

〈표12〉 서울지역 교인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제일	서울
'13	34,999	10,273	35,745	32,292	20,209	17,519	17,413	7,759		
'14	36,238	10,350	36,812	30,615	20,769	17,186	17,119	8,213		
'15	35,381	8,642	32,905	30,752	18,381	16,011	18,026	7,240		
'16	32,568	6,334	31,298	31,158	17,931	15,057	14,884	7,432		
'17	20,050	6,281	31,883	30,703	15,813	14,337	13,824	6,478	11,714	
'18	19,731	6,239	30,063	30,185	14,726	15,241	9,863	6,821	11,614	
'19	21,460	6,330	27,585	29,390	14,097	13,769	9,713	6,582	11,644	
'20	20,497	5,969	25,326	27,183	12,579	13,363	8,897	6,313	11,542	
'21	20,912	5,713	24,482	26,721	13,089	13,113	9,417	6,194	11,338	
'22	21,597	5,648	25,331	27,185	5,227	13,147	9,461	6,132	11,793	7,786
'23	22,162	5,415	25,839	27,299	5,299	12,764	9,567	5,689	11,245	9,148
증감	-12,837	-4,858	-9,906	-4,993	-14,910	-4,755	-7,846	-2,070	-469	1,362
평균	-1,069.8	-404.8	-825.5	-416.1	-1,242.5	-396.3	-653.8	-172.5	-39.1	113.5
증폭	-36.7%	-47.3%	-27.7%	-15.5%	-73.8%	-27.1%	-45.1%	-26.7%	-4.0%	17.5%

※ 서울제일지방회와 서울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경인지역의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13년 62,483명이던 경인지역의 교인 수는 26,399명 줄어들어 2023년 현재 36,0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인수의 42.2%가 줄어든 것이다.

경인지역에서 교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방회는 부천지방회로 77.6%가 줄었으며, 경인지방회는 동 기간 69.9%가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도에 부흥지방회가 분할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인 지방회는 인천중앙지방회로 동 기간 67.3%가 감소하였다.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인 인천동지방회도 17.2%나 감소한 것으로 경인지역에 관한 상황 분석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13〉 경인지역 교인수 변화표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중앙	부천	경인	부흥
'13	11,485	13,570	13,605	8,095	10,038	5,690	
'14	12,677	14,994	11,288	6,819	8,401	4,858	
'15	10,951	12,275	10,607	4,811	8,036	2,203	
'16	10,219	12,190	9,976	3,853	2,627	1,983	
'17	10,121	11,463	9,560	3,360	2,308	2,682	4,638
'18	11,038	10,841	8,848	3,085	2,195	1,814	3,543
'19	9,908	10,763	8,717	3,030	1,965	1,820	4,239
'20	8,844	9,422	8,033	2,884	1,840	1,681	4,084
'21	9,256	9,370	7,905	2,936	1,957	1,693	4,027
'22	9,247	8,839	7,798	2,782	2,001	1,656	3,853
'23	9,514	8,829	7,777	2,645	2,251	1,711	3,357
증감	-1,971	-4,741	-5,828	-5,450	-7,787	-3,979	-1,281
평균	-164.3	-395.1	-485.7	-454.2	-648.9	-331.6	-183.0
증감폭	-17.2%	-34.9%	-42.8%	-67.3%	-77.6%	-69.9%	-27.6%

경기지역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위의 표와 같다. 2013년 55,628명이던 경기지역 교인 수는 2023년 현재 32,350명으로 파악되어 동 기간 23,278명, 전체 교인의 41.8%가 감소하였다. 이는 경인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감소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기지역 6개 지방회 중 가장 크게 줄어든 지방회는 경기중앙지방회로 동 기간 4,105명으로 전체 교인의 50.8%가 줄었다. 이러한 감소는 2015년과 2016년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제108년차 교단 총회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표14〉 경기지역 교인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경 기 서	경 서
'13	9,149	8,088	11,473	11,635	10,753	4,530
'14	8,898	6,911	10,893	11,663	10,496	4,540
'15	7,015	4,158	10,035	8,177	9,448	2,011
'16	6,335	3,973	9,849	7,273	9,523	1,981
'17	6,185	3,910	8,311	7,336	9,113	1,963
'18	5,703	4,031	8,516	6,813	9,282	1,898
'19	5,624	3,874	8,537	7,055	8,815	1,777
'20	5,092	3,909	7,322	6,035	8,541	1,740
'21	5,010	3,602	7,016	6,055	7,568	1,990
'22	5,143	3,685	7,206	5,991	7,240	2,581
'23	4,893	3,983	7,368	6,044	7,211	2,851
증감	-4,256	-4,105	-4,105	-5,591	-3,542	-1,679
평균	-354.7	-342.1	-342.1	-465.9	-295.2	-139.9
증폭	-46.5%	-50.8%	-35.8%	-48.1%	-32.9%	-37.1%

경기지방회도 비슷한 시기에 교인 수가 크게 줄어 동 기간 내 48.1%에 해당하는 5,591명의 교인이 감소하였다. 경기동지방회도 46.5%가 줄었으며, 가장 적은 비율로 교인 수가 감소한 경기남지방회도 35.8%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원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오른쪽 표와 같다. 2013년 20,927명으로 보고 된 강원지역 교인수는 2023년 4,905명이 줄어든 16,022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전체 교인 수의 23.4%p가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서지방회는 강원지방회와의 분할 여파로 전체 교인수의 51.1%가 줄었고, 강원동지방회는

〈표15〉 강원지역 교인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3	7,349	13,578	
'14	7,964	14,008	
'15	6,981	12,356	
'16	6,599	12,176	
'17	6,432	7,650	4,546
'18	6,080	7,073	4,433
'19	6,058	7,370	4,475
'20	5,464	6,850	4,258
'21	5,288	6,842	4,085
'22	5,219	6,598	4,185
'23	5,074	6,640	4,308
증감	-2,275	-6,938	-238
평균	-189.6	-578.2	-34.0
증폭	-31.0%	-51.1%	-5.2%

※ 강원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31.0%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 분할된 지방회인 강원지방회는 4,546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7년간 238명이 줄어 전체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인이 등록된 충청지역은 2013년 102,238명의 교인 수가 2023년 현재 77,349명으로 전체 교인의 24.3%인 24,889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었다.

동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교인이 감소한 지방회는 대전동지방회로 전체 교인의 46.8%에 해당하는 5,675명이 줄었다. 20%대 감소를 보인 지방회도 전체 10개 지방회 중 6개 지방회였으며, 가장 적은 감소세를 보인 지방회는 동 기간 내에 381명, 전체 교인의 5.3%만이 줄어든 충청지방회이다.

〈표16〉 충청지역 교인수 변화표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서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공주
'13	5,258	11,456	7,217	20,872	9,012	12,120	7,907	10,962	11,334	6,100
'14	4,710	11,582	7,668	21,233	7,986	11,217	7,658	10,705	11,029	5,415
'15	4,300	11,183	7,557	21,353	8,104	10,211	6,779	8,832	10,719	5,522
'16	4,112	11,800	7,194	21,322	7,688	9,252	6,745	8,144	10,446	5,585
'17	4,226	11,085	6,628	21,234	7,245	9,028	6,606	8,399	9,996	5,794
'18	4,236	10,185	6,494	21,692	7,042	8,168	6,513	8,246	10,247	5,727
'19	4,201	10,495	6,587	21,699	7,301	7,778	6,485	8,208	9,708	5,745
'20	3,848	10,254	6,001	17,218	6,524	6,892	6,213	7,949	9,707	5,330
'21	3,779	10,274	6,715	17,120	6,619	6,751	5,789	8,015	9,077	5,104
'22	3,746	10,334	6,870	16,929	6,441	6,605	5,979	7,958	8,638	5,006
'23	3,762	9,952	6,836	17,093	6,487	6,445	5,657	7,903	8,464	4,750
증감	-1,496	-1,504	-381	-3,779	-2,525	-5,675	-2,250	-3,059	-2,870	-1,350
평균	-124.7	-125.3	-31.8	-314.9	-210.4	-472.9	-187.5	-254.9	-239.2	-122.7
증폭	-28.5%	-13.1%	-5.3%	-18.1%	-28.0%	-46.8%	-28.5%	-27.9%	-25.3%	-22.1%

2013년 76,104명이던 호남지역의 교인 수는 2023년 현재 47,121명으로 전체 38.1%p에 해당하는 28,98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숫자로는 동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교인이 줄어든 것이다.

2013년 4,822명이던 광주지방회는 전체 교인의 54.7%인 2,637명이 줄어

2023년 현재 2,185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호남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에 해당한다. 44.7%p의 광주동지방회와 43.3%의 전주지방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17〉 호남지역 교인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중앙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중앙	광주동
'13	8,303	23,773	6,410	10,963	6,038	5,871	4,822	3,347	2,482	4,095
'14	9,510	26,512	6,435	9,947	5,977	5,471	4,884	3,536	2,428	3,810
'15	8,551	19,057	5,854	9,356	5,360	5,157	3,269	3,001	2,116	2,986
'16	7,600	18,121	5,062	9,232	4,940	4,366	3,215	2,651	1,814	2,938
'17	7,601	18,301	5,348	8,777	4,748	4,302	2,762	2,839	1,872	2,736
'18	7,063	18,648	5,261	7,980	4,732	4,476	2,744	2,642	1,621	2,863
'19	7,055	18,644	5,040	7,799	4,520	4,378	2,685	2,623	1,609	2,705
'20	6,552	17,624	4,585	7,201	4,403	3,842	2,461	2,422	1,515	2,559
'21	6,400	15,455	4,303	7,002	4,281	4,037	2,290	2,342	1,546	2,447
'22	5,905	13,400	4,266	7,196	3,936	4,191	2,275	2,242	1,427	2,507
'23	6,552	13,488	4,185	7,052	3,828	3,940	2,185	2,024	1,601	2,266
증감	-1,751	-10,285	-2,225	-3,911	-2,210	-1,931	-2,637	-1,323	-881	-1,829
평균	-145.9	-857.1	-185.4	-355.5	-184.2	-160.9	-219.8	-110.3	-73.4	-166.3
증폭	-21.1%	-43.3%	-34.7%	-35.7%	-36.6%	-32.9%	-54.7%	-39.5%	-35.5%	-44.7%

영남지역의 2013년도 교인 수는 56,667명이었다. 2023년도는 28.2%에 해당하는 15,958명이 줄어 40,709명으로 보고되었다.

〈표18〉 영남지역 교인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북서	부산동	부산서	경 남	경남서	울 산
'13	7,769	4,308	5,663	4,796	10,229	11,594	8,108	4,200
'14	7,940	4,127	5,877	5,034	10,196	11,284	7,720	4,155
'15	8,029	3,787	6,056	4,464	9,139	11,209	7,172	3,726
'16	8,048	3,738	5,845	4,149	8,711	10,922	6,758	3,965
'17	8,653	3,612	5,977	4,092	8,553	11,042	6,614	3,840
'18	8,700	3,270	6,101	3,598	8,176	10,898	6,359	3,934
'19	8,490	3,344	5,894	3,503	8,242	10,167	6,005	3,391
'20	7,974	3,298	5,412	3,116	7,656	9,969	5,864	3,409
'21	8,009	3,101	5,338	3,134	7,449	8,605	5,763	2,908

	경 북	대 구	경북서	부산동	부산서	경 남	경남서	울 산
'22	6,218	2,952	5,155	2,891	7,455	8,841	5,691	2,492
'23	6,296	2,987	4,846	2,806	7,147	8,433	5,530	2,664
증감	-1,473	-1,321	-817	-1,990	-3,082	-3,161	-2,578	-1,536
평균	-122.8	-110.1	-68.1	-165.8	-256.8	-263.4	-214.8	-128.0
증폭	-19.0%	-30.7%	-14.4%	-41.5%	-30.1%	-27.3%	-31.8%	-36.6%

동 기간 영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줄어든 지방회는 41.5%의 부산동 지방회이며,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든 지방회는 3,161명이 감소한 경남지방회이다. 가장 낮은 비율로 줄어든 지방회는 14.4%의 경북서지방회이며, 가장 적은 숫자가 줄어든 지방회도 동 기간 내에 817명이 준 경북서지방회이다.

제주직할지방회의 2013년 교인 수는 2,415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 31.1%가 줄어든 1,665명으로 연평균 63명씩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교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9〉 최근 3년간 교인수 변화표

	2021	2022	2023	'22-'21	'23-'22	'23-'21	감소율	평균
서울지역	130,979	133,307	134,427	2,328	1,120	3,448	2.6%	1,149.3
경인지역	37,144	36,176	36,084	-968	-92	-1,060	-2.9%	-353.3
경기지역	31,241	31,846	32,350	605	504	1,109	3.5%	369.7
강원지역	16,215	16,002	16,022	-213	20	-193	-1.2%	-64.3
충청지역	79,243	78,506	77,349	-737	-1,157	-1,894	-2.4%	-631.3
호남지역	50,103	47,345	47,121	-2,758	-224	-2,982	-6.0%	-994.0
영남지역	44,307	41,695	40,709	-2,612	-986	-3,598	-8.1%	-1,199.3
제 주	1,732	1,791	1,665	59	-126	-67	-3.9%	-22.3
합 계	390,964	386,668	385,727	-4,296	-941	-5,237	-1.3%	-1,745.7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는 130,979명에서 134,427명으로 3,448명이 늘어나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지역도 31,241명에서 32,350명으로 3.5%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영남지역이 8.1%p, 3,598명이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호남지역이 6.0%p, 2,982명이 감소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다. 세례교인 수 변화

교단 헌법 제35조 1항은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19세 이상 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세례교인은 총회비의 기준점 중 하나로 총회의 세입을 원활히 하여 더욱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새신자로 들어온 교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기본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교인 수의 확보는 교회의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20〉 연도별 지역별 세례교인수 변화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3	113,444	40,743	37,795	14,809	62,132	47,993	37,068	1,259	355,243
'14	114,305	38,060	36,846	15,181	63,031	49,679	36,731	1,214	355,047
'15	106,850	32,197	25,865	13,851	60,872	44,117	34,849	1,313	319,914
'16	99,459	28,274	24,715	13,476	59,669	41,534	33,836	1,263	302,226
'17	97,749	30,088	24,144	13,442	58,897	41,852	33,615	1,261	301,048
'18	96,036	28,967	23,951	13,221	58,575	40,952	33,208	1,268	296,178
'19	94,484	28,267	24,338	13,338	58,057	41,029	32,170	1,272	292,955
'20	91,901	26,603	22,629	12,981	56,365	39,767	31,909	1,206	283,361
'21	92,103	27,328	22,463	12,713	55,425	39,294	31,616	1,230	282,172
'22	94,052	26,781	23,394	12,722	55,576	36,215	30,875	1,246	280,861
'23	93,966	26,957	23,779	12,637	54,946	36,263	30,299	1,200	280,047
증감	-19,478	-13,786	-14,016	-2,172	-7,186	-11,730	-6,769	-59	-75,196
평균	-1,623	-1,149	-1,168	-181	-599	-978	-564	-5	-6,266
증폭	-17.2%	-33.8%	-37.1%	-14.7%	-11.6%	-24.4%	-18.3%	-4.7%	-21.2%

우선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의 변화는 위의 표와 같다. 2013년 현재 355,243명인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는 2023년 280,047명으로 보고되어 동기간 75,19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인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제108년차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의 영향으로 허수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5,133명과 17,688명이 줄어든 것이다.

	'14-'13	'15-'14	'16-'15	'17-'16	'18-'17	'19-'18	'20-'19	'21-'20	'22-'21	'23-'22
서울지역	861	-7,455	-7,391	-1,710	-1,713	-1,552	-2,583	202	1,949	-86
경인지역	-2,683	-5,863	-3,923	1,814	-1,121	-700	-1,664	725	-547	176
경기지역	-949	-10,981	-1,150	-571	-193	387	-1,709	-166	931	385
강원지역	372	-1,330	-375	-34	-221	117	-357	-268	9	-85
충청지역	899	-2,159	-1,203	-772	-322	-518	-1,692	-940	151	-630
호남지역	1,686	-5,562	-2,583	318	-900	77	-1,262	-473	-3,079	48
영남지역	-337	-1,882	-1,013	-221	-407	-1,038	-261	-293	-741	-576
제주	-45	99	-50	-2	7	4	-66	24	16	-46
합계	-196	-35,133	-17,688	-1,178	-4,870	-3,223	-9,594	-1,189	-1,311	-814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는 2013년 113,444명에서 17.2%인 19,478명이 줄어든 93,966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지방회별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21〉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제일	서울
'13	21,806	7,645	21,510	21,717	11,610	12,464	11,350	5,342		
'14	21,806	7,688	22,389	21,790	11,622	12,810	10,973	5,227		
'15	20,264	6,865	21,413	21,501	10,206	11,576	10,236	4,789		
'16	20,200	4,648	20,474	20,192	9,356	10,280	9,461	4,848		
'17	13,361	4,550	20,406	19,699	9,205	10,025	9,015	4,516	6,972	
'18	13,588	4,572	19,234	19,239	9,203	10,167	7,702	4,644	7,687	
'19	13,365	4,724	19,589	18,707	8,468	9,875	7,642	4,505	7,609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 울 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제일	서 울
'20	13,409	4,494	19,164	18,056	7,735	9,647	7,285	4,420	7,691	
'21	13,546	4,437	18,851	18,041	8,421	9,804	7,688	4,412	6,903	
'22	14,092	4,425	19,536	18,120	4,405	9,994	7,616	4,515	6,102	5,247
'23	14,248	4,326	19,809	18,131	4,404	9,965	7,644	4,156	6,006	5,277
증감	-7,558	-3,319	-1,701	-3,586	-7,206	-2,499	-3,706	-1,186	-966	30
평균	-687.1	-301.7	-154.6	-326.0	-655.1	-227.2	-336.9	-107.8	-138.0	15.0
증폭	-34.7%	-43.4%	-7.9%	-16.5%	-62.1%	-20.0%	-32.7%	-22.2%	-13.9%	0.6%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 10개 지방회 중 9개 지방회의 세례교인 수가 감소하였는데 서울북지방회가 분지방회의 여파로 가장 많은 62.1%p가 줄었고 서울동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회만 유일하게 세례교인 수가 늘었는데 분지방이 된 2022년 5,247명에서 1년간 30명이 늘어 2023년 5,277명으로 나타났다.

〈표22〉 경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인 천 동	인 천 서	인 천 남	인천중앙	부 천	경 인	부 흥
'13	7,634	9,500	9,401	5,212	4,586	4,410	
'14	7,825	9,525	7,688	5,214	4,192	3,616	
'15	7,605	9,212	7,011	3,353	3,975	1,041	
'16	6,962	8,676	6,885	2,806	1,739	1,206	
'17	6,852	8,414	6,450	2,333	1,619	2,005	2,415
'18	7,634	8,018	6,279	2,085	1,567	1,207	2,177
'19	6,819	8,023	6,299	2,032	1,444	1,231	2,419
'20	6,485	7,074	6,044	2,051	1,416	1,213	2,320
'21	6,883	7,279	6,129	2,070	1,460	1,227	2,280
'22	6,820	7,016	6,006	2,001	1,555	1,218	2,165
'23	6,928	7,032	5,835	2,088	1,727	1,248	2,099
증감	-706	-2,468	-3,566	-3,124	-2,859	-3,162	-316
평균	-64.2	-224.4	-324.2	-284.0	-259.9	-287.5	-45.1
증폭	-9.2%	-26.0%	-37.9%	-59.9%	-62.3%	-71.7%	-13.1%

경인지역 세례교인수는 2013년 40,743명에서 33.8%에 해당하는 13,786명

이 줄어든 26,957명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인천동지방회가 9.2%p 감소하여 경인지역 내에 유일한 한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경인지방회는 71.7%, 부천지방회는 62.3%가 줄었는데, 2015년과 2016년에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23〉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경 기 서	경 서
'13	6,107	6,015	6,507	9,254	6,196	3,716
'14	6,170	5,217	6,394	9,269	6,089	3,707
'15	4,804	2,890	6,333	5,308	5,268	1,262
'16	4,407	2,805	5,947	5,029	5,260	1,267
'17	4,331	2,801	5,694	5,248	4,786	1,284
'18	4,058	2,844	5,742	4,850	5,246	1,211
'19	4,106	2,850	5,975	4,956	5,241	1,210
'20	3,816	2,630	5,285	4,493	5,203	1,202
'21	3,881	2,733	5,201	4,568	4,564	1,516
'22	4,024	2,831	5,384	4,558	4,573	2,024
'23	3,823	2,866	5,498	4,582	4,728	2,282
증감	-2,284	-3,149	-1,009	-4,672	-1,468	-1,434
평균	-207.6	-286.3	-91.7	-424.7	-133.5	-130.4
증폭	-37.4%	-52.4%	-15.5%	-50.5%	-23.7%	-38.6%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의 감소는 위의 표와 같이 6개 지방회 전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013년 37,795명이던 세례교인 수는 2023년 현재 37.1%p, 14,016명이 준 23,779명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회와 경기지방회는 각각 52.4%와 50.5%의 세례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여파로 2015년과 2016년도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보고된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14,809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 2,172명이 줄어든 12,637명으로 전체 세례교인 수의 1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서지방회는 2017년 강원지방회와의 분지방 여파로 전체 세례교인수의 46.8%에 해당하는 4,683명이 줄었으나 3,283명으로 시작한 강원지방회는 130명의 세례교인이 늘어 2023년 현재 4.0%의 성장세를 이루었다. 강원동지방회는 동 기간에 18.8%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였는데 최근에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점이 있었다.

〈표24〉 강원지역 교인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3	4,796	10,013	
'14	4,764	10,417	
'15	4,478	9,373	
'16	4,433	9,043	
'17	4,402	5,757	3,283
'18	4,409	5,534	3,278
'19	4,403	5,698	3,237
'20	4,205	5,538	3,238
'21	3,991	5,493	3,229
'22	4,029	5,345	3,348
'23	3,894	5,330	3,413
증감	-902	-4,683	130
평균	-82.0	-425.7	18.6
증감폭	-18.8%	-46.8%	4.0%

※ 강원방회는 지방회 분할 연도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충청지역의 세례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현재 충청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113,444명의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2,132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11.6%에 해당하는 7,186명이 줄었는데 2015년에 2,159명이, 2020년에 1,692명이 줄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25〉 충청지역 교인수 변화표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서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공주
'13	3,119	6,798	4,631	10,342	6,130	7,662	5,214	6,977	7,445	3,814
'14	3,229	6,963	5,159	10,448	6,012	7,885	4,965	6,890	7,577	3,903
'15	3,217	6,928	4,937	10,905	5,744	7,234	4,627	6,008	7,361	3,911
'16	2,957	7,093	4,484	10,935	5,644	6,864	4,645	5,541	7,324	4,182
'17	2,942	7,281	4,482	10,721	5,280	6,586	4,554	5,655	7,221	4,175
'18	3,017	7,134	4,652	10,775	5,231	6,130	4,468	5,629	7,425	4,114
'19	2,873	7,200	4,643	10,900	5,372	5,637	4,525	5,469	7,200	4,238
'20	2,821	6,956	4,416	10,899	4,957	5,228	4,407	5,379	7,228	4,074
'21	2,822	6,843	4,402	10,804	4,838	4,996	4,402	5,343	6,961	4,014
'22	2,849	6,827	4,663	10,780	4,899	4,991	4,507	5,310	6,921	3,829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서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공주
'23	2,856	6,387	4,653	10,869	4,814	4,957	4,408	5,348	6,877	3,777
증감	-263	-411	22	527	-1,316	-2,705	-806	-1,629	-568	-37
평균	-23.9	-37.4	2.0	47.9	-119.6	-245.9	-73.3	-148.1	-51.6	-3.4
증폭	-8.4%	-6.0%	0.5%	5.1%	-21.5%	-35.3%	-15.5%	-23.3%	-7.6%	-1.0%

충청지역에 속한 10개 지방회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지역은 35.3%의 대전동지방회이고 그 뒤를 23.3%의 대전중앙지방회가 따르고 있다. 반면 충서지방회는 동기간 527명의 세례교인이 늘어 5.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충청지방회도 22명, 0.5%의 세례교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3년 47,993명에서 2023년 36,263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수의 24.4%인 11,730명이 줄어들었다. 호남지역 각 지방회의 세례교인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5년에 무려 5,562명이나 줄었고, 2016년에도 2,583명이 줄어 이태에만 8,145명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표26〉 호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중앙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중앙	광주동
'13	5,900	13,357	4,557	6,164	4,498	4,012	2,864	2,170	1,573	2,898
'14	6,136	14,162	4,557	6,919	4,405	3,802	2,920	2,362	1,507	2,909
'15	5,511	13,844	4,062	5,807	3,890	3,603	2,002	2,058	1,331	2,009
'16	4,853	13,761	3,630	5,579	3,611	3,049	2,003	1,720	1,296	2,032
'17	5,111	14,351	3,621	5,298	3,607	3,132	1,520	2,007	1,202	2,003
'18	4,938	14,084	3,606	4,910	3,603	3,196	1,502	1,767	1,202	2,144
'19	4,919	14,520	3,259	4,994	3,603	3,105	1,621	1,746	1,202	2,060
'20	4,804	13,989	3,147	4,632	3,623	3,010	1,553	1,780	1,204	2,025
'21	4,790	13,336	3,182	4,721	3,621	3,105	1,542	1,775	1,202	2,020
'22	4,438	10,828	3,147	4,763	3,296	3,151	1,517	1,755	1,203	2,117
'23	4,909	10,826	3,165	4,861	3,263	3,046	1,528	1,603	1,228	1,834
증감	-991	-2,531	-1,392	-1,303	-1,235	-966	-1,336	-567	-345	-1,064
평균	-90.1	-230.1	-126.5	-118.5	-112.3	-87.8	-121.5	-51.5	-31.4	-96.7
증폭	-16.8%	-18.9%	-30.5%	-21.1%	-27.5%	-24.1%	-46.6%	-26.1%	-21.9%	-36.7%

기간 내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지방회는 역시나 각각 46.6%, 36.7% 감소한 광주지방회와 광주동지방회이다. 반면 가장 적은 감소세를 보인 지방회는 16.8%의 전북지방회와 18.9%의 전주지방회이다. 반면 가장 많은 수의 세례교인이 줄어든 지방회는 2,531명이 준 전주지방회이고, 그 뒤를 1,392명의 전북중앙지방회가 따르고 있다.

〈표27〉 영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북서	부산동	부산서	경 남	경남서	울 산
'13	4,652	3,000	4,533	3,705	6,864	6,404	4,909	3,001
'14	4,488	2,909	4,484	3,739	6,800	6,488	4,936	2,887
'15	4,484	2,697	4,348	3,149	6,434	6,433	4,444	2,860
'16	4,566	2,640	4,290	3,052	6,015	6,271	4,197	2,805
'17	4,779	2,646	4,247	2,952	5,846	6,264	4,080	2,801
'18	4,663	2,462	4,348	2,753	5,771	6,333	4,067	2,811
'19	4,431	2,505	4,269	2,679	5,769	6,039	4,084	2,394
'20	4,433	2,454	4,209	2,529	5,697	6,013	4,138	2,436
'21	4,443	2,421	4,167	2,577	5,715	6,119	4,041	2,133
'22	4,404	2,383	4,081	2,412	5,671	6,044	3,948	1,932
'23	4,432	2,374	4,030	2,331	5,462	5,778	3,802	2,090
증감	-220	-626	-503	-1,374	-1,402	-626	-1,107	-911
평균	-20.0	-56.9	-45.7	-124.9	-127.5	-56.9	-100.6	-82.8
증폭	-4.7%	-20.9%	-11.1%	-37.1%	-20.4%	-9.8%	-22.6%	-30.4%

2013년도 영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총 37,068명이었나 2023년 현재는 30,29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례교인의 18.3%인 6,769명이 줄어든 것으로 연평균 564명씩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882명, 1,013명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여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동 기간에 영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부산동지방회와 경남서지방회, 대구지방회 순으로 각각 37.1%p, 22.6%p, 20.9%p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지방회는 한 곳도 없었다.

제주직할지방회의 2013년도 세례교인 수는 1,259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 59

명, 전체 세례교인의 4.7%가 줄어든 1,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례교인의 감소세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20.2%인 71,882명이 줄어든 반면에 최근 3년에는 0.8%인 2,125명이 줄어 감소폭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새신자수 변화

교회의 본질은 전도이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하고 새신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지난 제117년차 총회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는 주제로 전 교회에 전도를 장려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보고하는 〈교세통계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세례교인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하였다.

〈표28〉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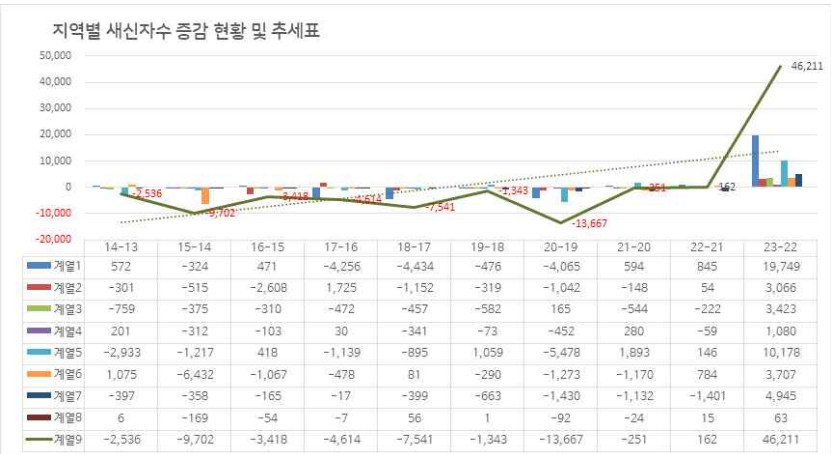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3	31,667	7,426	6,757	1,850	18,470	13,261	9,506	346	89,283
'14	32,239	7,125	5,998	2,051	15,537	14,336	9,109	352	86,747
'15	31,915	6,610	5,623	1,739	14,320	7,904	8,751	183	77,045
'16	32,386	4,002	5,313	1,636	14,738	6,837	8,586	129	73,627
'17	28,130	5,727	4,841	1,666	13,599	6,359	8,569	122	69,013
'18	23,696	4,575	4,384	1,325	12,704	6,440	8,170	178	61,472
'19	23,220	4,256	3,802	1,252	13,763	6,150	7,507	179	60,129
'20	19,155	3,214	3,967	800	8,285	4,877	6,077	87	46,462
'21	19,749	3,066	3,423	1,080	10,178	3,707	4,945	63	46,211
'22	20,594	3,120	3,201	1,021	10,324	4,491	3,544	78	46,373
'23	40,343	6,186	6,624	2,101	20,502	8,198	8,489	141	92,584
증감	8,676	-1,240	-133	251	2,032	-5,063	-1,017	-205	3,301
평균	723	-103	-11	21	169	-422	-85	-17	275
증감폭	27.4%	-16.7%	-2.0%	13.6%	11.0%	-38.2%	-10.7%	-59.2%	3.7%

2013년 우리 교단이 전도한 새신자 수는 89,283명이었으나 지난해는

92,584명으로 3,301명이 늘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새신자 숫자가 계속 줄어 2013년도 새신자 수의 52%에 해당하는 46,373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새신자를 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새신자 수의 증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9〉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13	572	-301	-759	201	-2,933	1,075	-397	6	-2,536
'15-'14	-324	-515	-375	-312	-1,217	-6,432	-358	-169	-9,702
'16-'15	471	-2,608	-310	-103	418	-1,067	-165	-54	-3,418
'17-'16	-4,256	1,725	-472	30	-1,139	-478	-17	-7	-4,614
'18-'17	-4,434	-1,152	-457	-341	-895	81	-399	56	-7,541
'19-'18	-476	-319	-582	-73	1,059	-290	-663	1	-1,343
'20-'19	-4,065	-1,042	165	-452	-5,478	-1,273	-1,430	-92	-13,667
'21-'20	594	-148	-544	280	1,893	-1,170	-1,132	-24	-251
'22-'21	845	54	-222	-59	146	784	-1,401	15	162
'23-'22	19,749	3,066	3,423	1,080	10,178	3,707	4,945	63	46,211



마. 교회학교 학생수 변화

지교회가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교세통계표〉에서 교회학교에 관한 보

고 형식이 2023년도부터 변화가 되었다. 기존의 교세통계표에 입력을 하는 것 외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로 세분화하고 각 부서를 남녀와 학생·교사를 나누어 보고하게 한 것이다. 이는 각 나이대마다 특성이 다른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구축할 기회이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입력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전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23년도 교회학교 통계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우선 기존의 교세통계표를 기준으로 연도별 교회학교 학생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표30〉 연도별 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변화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3	30,122	14,265	11,058	4,033	21,245	15,312	10,391	672	107,098
'14	29,271	13,676	10,898	4,306	20,735	14,309	10,825	600	104,620
'15	27,528	9,857	9,402	3,600	19,771	12,418	10,425	531	93,532
'16	24,817	8,572	8,906	3,663	17,881	11,568	9,714	540	85,661
'17	25,204	8,317	7,833	3,520	17,745	11,075	10,199	499	84,392
'18	24,751	7,822	7,908	3,040	17,271	10,638	9,658	557	81,645
'19	22,866	7,919	7,542	3,313	16,387	9,879	9,359	579	77,844
'20	20,613	6,971	6,043	2,791	15,286	8,520	8,712	422	69,358
'21	19,127	6,750	5,355	2,422	13,640	7,102	7,746	439	62,581
'22	18,661	6,275	5,251	2,259	12,606	6,639	7,276	467	59,434
'23	19,795	5,851	5,398	2,356	12,059	6,360	6,718	386	58,923
증감	-10,327	-8,414	-5,660	-1,677	-9,186	-8,952	-3,673	-286	-48,175
평균	-861	-701	-472	-140	-766	-746	-306	-24	-4,015
증감률	-34.3%	-59.0%	-51.2%	-41.6%	-43.2%	-58.5%	-35.3%	-42.6%	-45.0%

2013년 107,098명이던 교회학교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58,923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교회학교 학생 수의 45.0%가 줄어든 것으로 동 기간에 48,175명이 감소하였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3년 대비 59.0%의 학생이 줄어든 경인지역으로 나타났으며, 58.5%의 호남지역과 51.2%의 경기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진 지역은 서울로 2013년에 비해 10,327명이 줄었으며, 9,186명의 충청지역과 8,414명의 경인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4-'13	'15-'14	'16-'15	'17-'16	'18-'17	'19-'18	'20-'19	'21-'20	'22-'21	'23-'22
서울지역	-851	-1,743	-2,711	387	-453	-1,885	-2,253	-1,486	-466	1,134
경인지역	-589	-3,819	-1,285	-255	-495	97	-948	-221	-475	-424
경기지역	-160	-1,496	-496	-1,073	75	-366	-1,499	-688	-104	147
강원지역	273	-706	63	-143	-480	273	-522	-369	-163	97
충청지역	-510	-964	-1,890	-136	-474	-884	-1,101	-1,646	-1,034	-547
호남지역	-1,003	-1,891	-850	-493	-437	-759	-1,359	-1,418	-463	-279
영남지역	434	-400	-711	485	-541	-299	-647	-966	-470	-558
제주	-72	-69	9	-41	58	22	-157	17	28	-81
합계	-2,478	-11,088	-7,871	-1,269	-2,747	-3,801	-8,486	-6,777	-3,147	-511

〈표31〉 연도별 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증감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13	-851	-589	-160	273	-510	-1,003	434	-72	-2,478
'15-'14	-1,743	-3,819	-1,496	-706	-964	-1,891	-400	-69	-11,088
'16-'15	-2,711	-1,285	-496	63	-1,890	-850	-711	9	-7,871
'17-'16	387	-255	-1,073	-143	-136	-493	485	-41	-1,269
'18-'17	-453	-495	75	-480	-474	-437	-541	58	-2,747
'19-'18	-1,885	97	-366	273	-884	-759	-299	22	-3,801
'20-'19	-2,253	-948	-1,499	-522	-1,101	-1,359	-647	-157	-8,486
'21-'20	-1,486	-221	-688	-369	-1,646	-1,418	-966	17	-6,777
'22-'21	-466	-475	-104	-163	-1,034	-463	-470	28	-3,147
'23-'22	1,134	-424	147	97	-547	-279	-558	-81	-511

2013년에서 2023년 중 가장 감소 폭이 큰 시기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로 11,088명의 학생이 줄었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8,486명의 학

생이 감소하였다.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유초등부 학생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표털(http://kosis.kr)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조사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21년의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32〉 2010년~2021년 0~14세 인구 증감

	2010	2021	증감	증감율
0~4세	2,219,084명	1,570,409명	-648,675명	-29.2%
5~9세	2,394,663명	2,212,372명	-182,291명	-7.6%
10~14세	3,173,226명	2,304,690명	-868,536명	-27.4%
합계	7,786,973명	6,087,471명	-1,699,502명	-21.8%

위 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11년간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는 7,786,973명에서 6,087,471명으로 21.8%인 1,699,50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52.1%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었으니, 인구감소율보다 약 2.4배나 더 감소하고 있다. 다만 그 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위안 삼을 만하다.

2023년도에 새롭게 작성된 교회학교 통계는 학교를 기준으로 남녀와 학생, 교사를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아래와 같다. 우선 2023년도 우리 교단의 지방회별 학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33〉 2023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동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울중앙	496	490	507	1,493	595	468	1,063	3,033	266
서 울 동	174	186	159	519	155	134	289	630	136
서 울 서	947	999	1,206	3,152	1,171	920	2,091	3,826	380
서 울 남	749	732	799	2,280	692	445	1,137	4,401	263
서 울 북	189	210	147	546	208	76	284	405	91
서울강서	384	400	497	1,281	445	365	810	1,121	280
서울강남	311	275	300	886	263	253	516	742	229
서울강동	156	150	225	531	205	171	376	494	130
서울제일	243	321	384	948	331	338	669	624	129

지방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연합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 울	161	280	216	657	360	181	541	756	104
인천동	319	298	459	1,076	379	345	724	1,192	204
인천서	299	304	414	1,017	367	361	728	938	206
인천남	211	254	276	741	332	237	569	774	197
인천중앙	71	86	111	268	102	92	194	306	151
부 천	103	70	104	277	80	83	163	351	82
경 인	58	77	108	243	47	45	92	239	101
부 흥	59	79	133	271	128	117	245	618	71
경기동	215	113	239	567	194	167	361	413	110
경기중앙	120	118	109	347	141	92	233	389	103
경기남	256	239	271	766	267	263	530	743	214
경 기	160	196	239	595	223	181	404	850	164
경기서	228	257	290	775	301	259	560	608	129
경 서	51	62	96	209	66	67	133	193	85
강원동	112	189	195	496	171	139	310	457	134
강원서	233	179	244	656	201	207	408	530	176
강 원	97	122	178	397	121	133	254	266	120
충 북	131	154	161	446	145	102	247	397	106
청 주	284	248	451	983	316	269	585	849	미보고
충 청	249	182	278	709	244	194	438	790	148
충 서	603	550	821	1,974	570	411	981	1,292	312
충서중앙	183	195	247	625	208	180	388	408	미보고
대전동	176	219	251	646	216	160	376	664	180
대전서	166	170	235	571	219	196	415	625	142
대전중앙	158	269	280	707	239	220	459	916	169
충 남	162	231	303	696	244	202	446	578	204
세종공주	141	157	136	434	177	130	307	419	119
전 북	200	185	221	606	231	171	402	465	157
전 주	215	302	555	1,072	369	279	648	1,028	196
전북중앙	99	117	147	363	133	102	235	426	72
군 산	250	370	247	867	286	205	491	611	147
전남동	104	135	84	323	95	65	160	20	106
전남서	93	125	190	408	125	138	263	260	119
광 주	90	114	142	346	96	88	184	150	102
전 남	41	47	104	192	56	50	106	210	81
전남중앙	30	91	59	180	43	48	91	62	39
광주동	75	73	105	253	68	48	116	216	93
경 북	195	215	281	691	216	208	424	761	162
대 구	106	89	101	296	101	112	213	433	151
경북서	131	147	193	471	132	125	257	443	201
부산동	67	79	89	235	96	52	148	240	94
부산서	202	247	318	767	205	243	448	1,104	165

지방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경 남	240	314	368	922	293	229	522	653	179
경남서	142	168	270	580	248	196	444	400	195
울 산	94	82	112	288	72	71	143	298	103
제주직할	53	67	120	240	79	60	139	106	68
합 계	11,082	12,028	14,775	37,885	13,067	10,693	23,760	39,723	8,065

기존 통계표에 기록된 학생 수와 새로운 표에 기록된 학생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계산 방식의 차이와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회별 교회당 학생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4〉 2023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6.8	6.7	6.9	20.5	8.2	6.4	14.6	41.5
서 울 동	3.6	3.9	3.3	10.8	3.2	2.8	6.0	13.1
서 울 서	8.9	9.3	11.3	29.5	10.9	8.6	19.5	35.8
서 울 남	10.7	10.5	11.4	32.6	9.9	6.4	16.2	62.9
서 울 북	4.3	4.8	3.3	12.4	4.7	1.7	6.5	9.2
서울강서	4.9	5.1	6.3	16.2	5.6	4.6	10.3	14.2
서울강남	4.6	4.0	4.4	13.0	3.9	3.7	7.6	10.9
서울강동	4.7	4.5	6.8	16.1	6.2	5.2	11.4	15.0
서울제일	6.2	8.2	9.8	24.3	8.5	8.7	17.2	16.0
서 울	3.0	5.3	4.1	12.4	6.8	3.4	10.2	14.3
인 천 동	4.5	4.2	6.5	15.2	5.3	4.9	10.2	16.8
인 천 서	4.7	4.8	6.6	16.1	5.8	5.7	11.6	14.9
인 천 남	3.8	4.5	4.9	13.2	5.9	4.2	10.2	13.8
인천중앙	1.3	1.6	2.1	5.0	1.9	1.7	3.6	5.7
부 천	2.9	2.0	3.0	7.9	2.3	2.4	4.7	10.0
경 인	1.3	1.7	2.4	5.4	1.0	1.0	2.0	5.3
부 흥	1.8	2.4	4.0	8.2	3.9	3.5	7.4	18.7
경 기 동	4.4	2.3	4.9	11.6	4.0	3.4	7.4	8.4
경기중앙	2.9	2.9	2.7	8.5	3.4	2.2	5.7	9.5
경 기 남	3.9	3.6	4.1	11.6	4.0	4.0	8.0	11.3
경 기	3.0	3.6	4.4	11.0	4.1	3.4	7.5	15.7
경 기 서	5.0	5.6	6.3	16.8	6.5	5.6	12.2	13.2
경 서	1.1	1.3	2.0	4.4	1.4	1.4	2.8	4.0
강 원 동	2.4	4.0	4.1	10.6	3.6	3.0	6.6	9.7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강 원 서	4.6	3.5	4.8	12.9	3.9	4.1	8.0	10.4
강 원	2.3	2.8	4.1	9.2	2.8	3.1	5.9	6.2
충 북	3.3	3.9	4.0	11.2	3.6	2.6	6.2	9.9
청 주	4.0	3.5	6.4	13.8	4.5	3.8	8.2	12.0
충 청	4.4	3.3	5.0	12.7	4.4	3.5	7.8	14.1
충 서	5.7	5.2	7.7	18.6	5.4	3.9	9.3	12.2
충서중앙	3.0	3.2	4.0	10.2	3.4	3.0	6.4	6.7
대 전 동	2.5	3.1	3.5	9.1	3.0	2.3	5.3	9.4
대 전 서	3.4	3.5	4.8	11.7	4.5	4.0	8.5	12.8
대전중앙	3.2	5.4	5.6	14.1	4.8	4.4	9.2	18.3
충 남	2.3	3.3	4.4	10.1	3.5	2.9	6.5	8.4
세종공주	2.6	2.9	2.5	8.0	3.3	2.4	5.7	7.8
전 북	4.1	3.8	4.5	12.4	4.7	3.5	8.2	9.5
전 주	3.5	5.0	9.1	17.6	6.0	4.6	10.6	16.9
전북중앙	2.8	3.3	4.1	10.1	3.7	2.8	6.5	11.8
군 산	4.8	7.1	4.8	16.7	5.5	3.9	9.4	11.8
전 남 동	1.9	2.4	1.5	5.8	1.7	1.2	2.9	0.4
전 남 서	1.3	1.7	2.6	5.6	1.7	1.9	3.6	3.6
광 주	2.8	3.6	4.4	10.8	3.0	2.8	5.8	4.7
전 남	1.1	1.3	2.8	5.2	1.5	1.4	2.9	5.7
전남중앙	1.0	2.9	1.9	5.8	1.4	1.5	2.9	2.0
광 주 동	1.9	1.8	2.6	6.3	1.7	1.2	2.9	5.4
경 북	3.9	4.3	5.6	13.8	4.3	4.2	8.5	15.2
대 구	2.5	2.1	2.4	7.0	2.4	2.7	5.1	10.3
경 북 서	2.1	2.4	3.1	7.6	2.1	2.0	4.1	7.1
부 산 동	2.1	2.5	2.8	7.3	3.0	1.6	4.6	7.5
부 산 서	4.2	5.1	6.6	16.0	4.3	5.1	9.3	23.0
경 남	4.7	6.2	7.2	18.1	5.7	4.5	10.2	12.8
경 남 서	2.2	2.5	4.1	8.8	3.8	3.0	6.7	6.1
울 산	2.8	2.4	3.3	8.5	2.1	2.1	4.2	8.8
제주직할	2.5	3.2	5.7	11.4	3.8	2.9	6.6	5.0
합 계	3.8	4.1	5.1	13.0	4.5	3.7	8.1	13.6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교회 학생 수는 37,885명으로 교회당 평균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수는 13.0명이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는 23,760명으로 교회당 8.1명이다. 정상적인 교회학교를 꾸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회당 평균 청년 숫자는 13.6명이다.

전국 지방회 중 유치부 학생이 가장 많은 지방회는 충서지방회로 603명으로 보고하였다. 교회당 평균 유치부 학생이 가장 높은 지방회는 10.7명의 서울남지방회이다. 유년부 또한 충서지방회가 5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남

지방회가 10.5명으로 평균치가 가장 높았다. 초등는 서울서방회와 서울남지방회가 각각 학생 수가 1,206명, 평균치는 11.4명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3,152명의 서울서지방회이며 서울남지방회가 2,280명, 충서지방회가 1,974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교회당 어린이교회학교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32.6명의 서울남지방회이며, 29.5명의 서울서지방회와 24.3명의 서울제일지방회가 뒤를 따르고 있다.

중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171명의 서울서지방회이며, 교회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 역시 10.9명의 서울서지방회이다. 고등부 또한 서울서지방회가 920명, 8.6명으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교회 학생 수 역시 2,091명의 서울서지방회가 1,137명의 서울남지방회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부는 서울남지방회가 4,40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서울서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가 각각 3,826명과 3,033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지열별로 교회학교 학생 수를 확인해 보면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지역이 여러 모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기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표35〉 2023년도 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구분	유 치 부		유 년 부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청 년 부	
지역	학생	평균	학생	평균	학생	평균	학생	평균	학생	평균	학생	평균
서울	3,810	6	4,043	7	4,440	7	4,425	7	3,351	5	16,032	26
경인	1,120	3	1,168	3	28,364	79	1,435	4	1,280	4	4,418	12
경기	1,030	3	985	3	1,244	4	1,192	4	1,029	3	3,196	11
강원	442	3	490	3	617	4	493	3	479	3	1,253	9
충청	2,253	4	2,375	4	3,163	5	2,578	4	2,064	3	6,938	11
호남	1,197	3	1,559	3	1,854	4	1,502	3	1,194	3	3,448	7
영남	1,177	3	1,341	3	1,732	4	1,363	4	1,236	3	4,332	11
제주	53	3	67	3	120	6	79	4	60	3	106	5
합계	11,082	4	12,028	4	41,534	14	13,067	4	10,693	4	39,723	14

교회당 교회학교 교사의 평균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36〉 2023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교사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2.1	1.5	2.1	5.8	1.3	1.3	2.6	1.7
서 울 동	1.9	1.0	1.0	3.9	0.9	0.8	1.7	0.4
서 울 서	3.0	2.1	2.6	7.7	2.0	1.6	3.6	0.8
서 울 남	3.8	2.6	2.9	9.4	2.2	1.7	3.8	0.6
서 울 북	1.0	1.3	0.8	3.1	1.1	0.5	1.6	0.6
서울강서	1.9	1.4	1.9	5.1	1.2	1.4	2.6	0.6
서울강남	1.6	1.2	1.2	4.0	1.0	0.9	2.0	0.7
서울강동	2.0	1.3	1.6	4.9	1.3	1.0	2.3	0.6
서울제일	2.1	1.1	1.4	4.5	0.7	1.0	1.7	0.5
서 울	1.8	1.2	1.5	4.6	1.2	0.9	2.1	0.3
인 천 동	1.7	1.2	1.9	4.8	1.4	1.4	2.7	1.2
인 천 서	2.0	1.4	1.6	4.9	1.3	1.1	2.4	0.4
인 천 남	1.6	1.5	1.6	4.7	1.2	1.1	2.2	0.8
인천중앙	0.6	0.6	0.6	1.8	0.5	0.4	0.9	0.6
부 천	1.3	0.6	1.0	3.0	0.6	0.9	1.5	0.3
경 인	0.4	0.4	0.5	1.2	0.3	0.4	0.7	0.4
부 흥	0.6	0.7	1.2	2.5	0.5	0.4	0.9	1.0
경 기 동	1.2	1.2	1.1	3.6	1.0	0.7	1.7	0.5
경기중앙	1.2	1.1	1.2	3.4	0.9	0.6	1.5	0.6
경 기 남	1.4	1.0	1.2	3.5	1.0	0.8	1.8	0.5
경 기	0.9	1.0	1.2	3.1	1.1	0.9	2.0	0.4
경 기 서	1.8	1.5	1.5	4.9	1.3	1.3	2.6	0.4
경 서	0.4	0.4	0.6	1.4	0.3	0.3	0.5	0.3
강 원 동	0.9	1.0	1.0	2.9	0.7	0.6	1.3	0.5
강 원 서	1.9	0.9	1.4	4.3	1.0	0.9	2.0	0.3
강 원	0.8	0.3	1.2	2.4	0.6	0.6	1.1	0.2
충 북	1.2	1.1	1.1	3.4	0.6	0.6	1.2	0.5
청 주	미보고							
충 청	1.4	1.0	1.2	3.7	1.0	0.9	1.9	0.4
충 서	1.3	1.2	1.5	4.0	0.8	0.7	1.6	0.3
충서중앙	0.9	0.9	0.7	2.5	0.4	0.6	1.0	0.2
대 전 동	0.9	0.7	0.8	2.4	0.7	0.6	1.3	0.3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대 전 서	1.4	1.2	1.3	3.9	0.8	0.9	1.7	0.6
대전중앙	1.7	1.2	1.2	4.1	1.2	1.2	2.4	0.6
충 남	0.8	0.9	1.1	2.8	0.8	0.7	1.6	0.3
세종공주	0.9	0.9	0.9	2.7	1.0	0.8	1.7	0.4
전 북	1.2	1.0	1.3	3.5	1.3	0.8	2.2	0.4
전 주	1.5	1.8	2.4	5.7	1.3	1.2	2.5	0.3
전북중앙	1.2	1.0	1.3	3.5	0.8	0.9	1.8	0.3
군 산	1.3	1.3	1.2	3.8	1.0	0.8	1.8	0.4
전 남 동	0.5	0.9	0.3	1.7	0.4	0.4	0.7	0.3
전 남 서	0.3	0.4	0.8	1.5	0.4	0.4	0.7	0.1
광 주	1.0	1.1	1.2	3.3	0.8	0.7	1.5	0.3
전 남	0.5	0.6	0.7	1.9	0.5	0.6	1.2	0.1
전남중앙	0.3	0.4	0.3	0.9	0.2	0.3	0.5	0.2
광 주 동	0.5	0.4	0.6	1.5	0.4	0.3	0.7	0.2
경 북	1.7	1.4	1.6	4.7	1.2	1.0	2.2	0.5
대 구	1.5	0.9	0.8	3.2	1.0	0.9	1.9	0.7
경 북 서	0.7	0.8	0.8	2.4	0.6	0.7	1.4	0.4
부 산 동	0.3	0.3	0.4	1.0	0.4	0.4	0.8	0.0
부 산 서	2.3	1.7	2.1	6.2	1.7	2.0	3.7	0.9
경 남	2.1	1.6	2.0	5.7	1.1	0.9	1.9	0.4
경 남 서	0.8	0.6	1.0	2.4	0.7	0.7	1.5	0.3
울 산	1.0	1.1	1.2	3.4	0.8	0.7	1.5	0.4
제주직할	0.8	0.9	1.5	3.1	0.4	0.4	0.8	0.4
합 계	1.3	1.1	1.3	3.7	0.9	0.9	1.8	0.5

어린이교회의 평균 교사숫자는 4명이 채 되지 않으며, 청소년교회는 2명이 되지 못한다. 교사 수급이 가장 원활한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어린이교회는 9.4명, 청소년교회는 3.8명의 교사가 평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청년부 교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방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동지방회와 부흥지방회가 각각 1.2명과 1.0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지역별 교회학교 교사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37〉 2023년도 지역별 교회학교 교사 수

구분	유 치 부		유 년 부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청 년 부	
지역	교사	평균	교사	평균	교사	평균	교사	평균	교사	평균	교사	평균
서울	1,387	2	960	2	1,137	2	852	1	739	1	450	1
경인	447	1	356	1	4,759	13	319	1	312	1	254	1
경기	354	1	310	1	345	1	279	1	234	1	137	0
강원	176	1	107	1	173	1	109	1	101	1	50	0
충청	644	1	568	1	613	1	455	1	425	1	204	0
호남	392	1	426	1	491	1	341	1	302	1	119	0
영남	504	1	410	1	493	1	365	1	361	1	175	0
제주	16	1	18	1	31	1	8	0	8	0	8	0
합계	3,920	1	3,155	1	8,042	3	2,728	1	2,482	1	1,397	0

2. 교역자 수의 변화

한국 사회는 2000년대부터 탈종교화 사회로 들어섰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다. 이는 2014년의 50%에 비해 10%나 떨어진 비율이다.

종교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실에 교역자 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재정이 악화하면 교역자의 생활 수준과 목회 사역의 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 제4조 2항 차호에는 목사에 대해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규정하며 이중직을 금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목회자가 생존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회자의 이중직은 이제까지는 모르는 척하며 눈감아주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공공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문제이다.

이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전도사가 전임 사역지를 구할 수 없어 주중에 직업을 가지는 주말 사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의 질적 하락은 결국 교회사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회는 적절한 교단의 교역자수급이 얼마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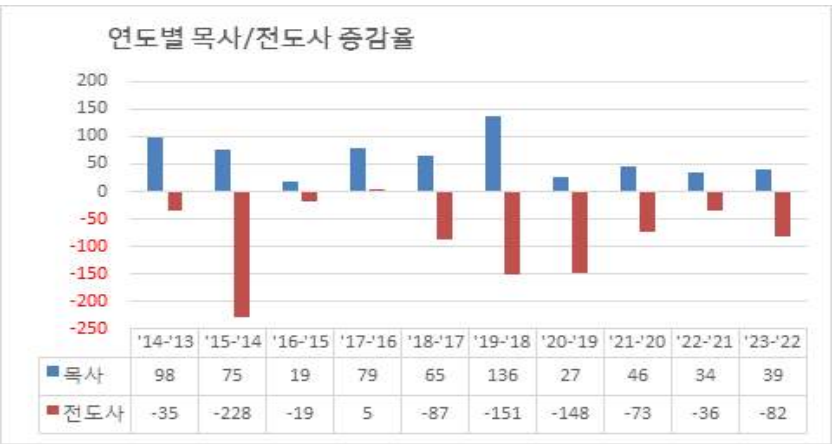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역자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8〉 연도별 교역자 수 변화

연도	목사	비중	전도사	비중	계
2013	4,228명	65.4%	2,241명	34.6%	6,469명
2014	4,326명	66.0%	2,231명	34.0%	6,557명
2015	4,401명	67.7%	2,097명	32.3%	6,498명
2016	4,420명	68.1%	2,073명	31.9%	6,493명
2017	4,499명	68.4%	2,082명	31.6%	6,581명
2018	4,564명	69.1%	2,043명	30.9%	6,607명
2019	4,700명	70.5%	1,962명	29.5%	6,662명
2020	4,727명	71.6%	1,875명	28.4%	6,602명
2021	4,773명	72.3%	1,827명	27.7%	6,600명
2022	4,807명	72.6%	1,815명	27.4%	6,622명
2023	4,846명	73.4%	1,756명	26.6%	6,602명
2023-2013	618명		-485명		133명
연평균	51.5명		-40.4명		11.1명

2013년 현재 4,228명이던 전체 목자의 숫자는 11년간 총 618명이 늘어 2022년 현재 4,846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2013년도에 2,241명이던 전도사의 숫자는 동기간 485명이 줄어 2023년 현재 1,756명이었다. 목사와 전도사의 증감현황은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연평균 목사는 51.5명씩 늘어나는데 전도사는 40.4명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직분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빈약한 사례비 문제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이 외에도 전도사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서울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수의 감소 보다 목회신학연구원, 특히 지방교역자양성원의 신입생 급감에 주요한 원이 있다. 이미 신입생이 1~2명인 지방교역자양성원도 여럿이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신학교마저 40여 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지방신학교양성원의 통폐합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의 허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총회임원회와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와 목회신학연구원, 지방교역자양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인 추계를 연구한 후 통폐합과 정원 감소 등 과감한 정책과 더불어 전도사의 생활 수준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까지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표39〉 연도별 남녀 교역자 수 증감 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4-2013	95명	3명	-25명	-10명
2015-2014	49명	26명	-94명	-134명
2016-2015	2명	17명	5명	-24명
2017-2016	42명	37명	-4명	9명
2018-2017	30명	35명	-48명	-39명
2019-2018	108명	28명	-70명	-81명
2020-2019	-3명	30명	-61명	-87명
2021-2020	39명	7명	-25명	-48명
2022-2021	2명	32명	-24명	-12명
2023-2022	15명	24명	-23명	-59명
합계	364명	215명	-346명	-426명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남자 전도사는 346명이 감소했고, 여자 전도사는 426명이 감소했다. 동기간 남성 목사는 364명이 늘었고 여성 목사도 215명이 늘었다. 이를 통해 남성 전도사의 대부분은 안수를 통해 목사가 되지만 여성 전도사의 절반이 여러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거나 전도사로 정년 은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내 연도별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목사나 전도사를 불문하고 남성 교역자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만큼 여성 교역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 목사 숫자는 아직 목사 전체 인원의 8.0%밖에 되지 않지만, 전도사는 여성이 전체 전도사 인원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고 있다.

〈표40〉 연도별 전체 교역자 중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 증감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3	96.5%	3.5%	46.2%	53.8%
2014	96.5%	3.5%	45.3%	54.7%
2015	95.9%	4.1%	43.7%	56.3%
2016	95.6%	4.4%	44.4%	55.6%
2017	94.8%	5.2%	44.0%	56.0%
2018	94.1%	5.9%	42.5%	57.5%
2019	93.7%	6.3%	40.7%	59.3%
2020	93.1%	6.9%	39.4%	60.6%
2021	93.0%	7.0%	39.0%	61.0%
2022	92.4%	7.6%	38.0%	62.0%
2023	92.0%	8.0%	37.9%	62.1%
2023-2013	-4.5%	4.5%	-8.3%	8.3%

3. 교직자 수의 변화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운영과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자 수의 변화는 해 교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교단은 장로 35세, 권사 45세, 안수집사 35세, 집사 22세로 해당 직분의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분의 인구 변화를 살피면 교회나 교단을 구성하는 성도의 연령대 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지난 11년간 교회 안의 교직자 수의 증가는 아래 표와 같다. 동 기간 장로는 1,565명이 늘었고, 권사는 13,314명이 늘었다. 안수집사 또한 2,415명이 늘어났으나 집사의 숫자는 감소하였는데 지난 11년간 34,36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41〉 연도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수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합계
2013	6,719명	43,941명	8,059명	130,017명	214,736명
2014	7,012명	45,803명	8,386명	129,274명	190,475명
2015	6,998명	46,548명	8,715명	126,238명	188,499명
2016	7,111명	46,839명	8,824명	120,407명	183,181명
2017	7,283명	48,838명	9,268명	119,341명	184,730명
2018	7,527명	50,010명	9,558명	116,545명	183,640명
2019	7,722명	51,350명	9,691명	117,034명	185,797명
2020	7,817명	52,665명	9,844명	111,552명	181,878명
2021	7,975명	53,780명	10,014명	109,772명	181,541명
2022	8,144명	54,644명	10,267명	107,033명	170,131명
2023	8,284명	57,255명	10,474명	104,358명	180,371명
2023-2013	1,565명	13,314명	2,415명	-25,659명	-34,362명
연평균	130명	1,110명	201명	-2,138명	-3,124명

집사의 감소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42〉 연도별 남녀 집사 수 증감 현황

집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남	48,334	48,634	48,113	45,787	45,651	44,920
여	81,683	80,640	78,125	74,620	736,90	71,625
집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2-2011
남	45,523	43,855	43,535	42,947	42,101	-6,233
여	71,511	67,697	66,237	64,086	62,257	-19,426

2013년에 보고된 남성 집사의 숫자는 48,224명, 여성 집사는 81,683명이었으나 2023년 현재 남성 집사는 42,101명으로 6,233명이 줄었고, 여성 집사는

19,426명이 줄어든 62,257명으로 보고 되었다.

문제는 추세이다. 매년 1,600여 명씩 여성 집사가 줄어드는 대신 930여 명씩 여성 권사와 여성 장로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 집사도 매년 520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 권사와 남성 장로는 3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

	'14-'13	'15-'14	'16-'15	'17-'16	'18-'17	'19-'18	'20-'19	'21-'20	'22-'21	'23-'22
■남집사	300	-521	-2,326	-136	-731	603	-1,668	-320	-588	-846
■여집사	-1,043	-2,515	-3,505	-930	-2,065	-114	-3,814	-1,460	-2,151	-1,829

우리 교단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받는 것을 고려하면 3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의 집사들이 대거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교회 안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노년 성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제118년차 총회에서 준비 중인 '생애주기별 성경공부'는 그런 면에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며 특히 선제적으로 노년 성도를 위한 영상 교재 개발은 시급히 마무리하여 전국 교회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4. 교인구성비의 변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직분자와 세례교인과 새신자가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할 것이다. 새신자 규모가 작다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고 직분자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라면 향후 급격한 교세 감소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우리 교단 전체 교인 대비 세례교인과 새신자의 비중은 각각 64.3%와 16.2%였다. 11년 후 2023년에는 그 비중이 세례교인은 72.6%이고 새신자는 12.1%로 변화하였다. 동 기간 내 세례교인 수와 새신자 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세례교인 수는 75,150명이 줄어 전체 세례교인 수의 8.34%가 감소하였고, 새신자 수는 42,526명이 줄었는데 이는 2013년도 새신자 수의 4.03%에 해당한다. 지난 11년간 세례교인은 연평균 6,263명이 줄었고, 새신자는 그 절반 수준인 3,54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연도별 전체교인 대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및 비중 변화

연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3	355,243명	64.3%	89,283명	16.2%
2014	355,047명	64.8%	86,747명	15.8%
2015	319,914명	65.1%	77,045명	15.7%
2016	302,226명	65.5%	73,627명	16.0%
2017	301,048명	66.2%	69,013명	15.2%
2018	296,178명	67.4%	61,472명	14.0%
2019	292,955명	68.0%	60,129명	14.0%
2020	283,361명	71.0%	46,462명	11.6%
2021	282,172명	72.2%	46,211명	11.8%
2022	280,861명	72.6%	46,373명	12.0%
2023	280,093명	72.6%	46,757명	12.1%
2023-2011	-75,150명	8.34%	-42,526명	-4.03%
연평균	-6,263명	0.69%	-3,544명	-0.34%

제117년차 총회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라는 표어로 전도를 강조하고 격려하였다. 그러한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신자 숫자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제118년차 총회의 지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성결교회다운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성결교회 전도 대상'의 성패에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 말할 것이다.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의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44〉 연도별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 비중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3	1.2%	8.0%	1.5%	23.5%	19.4%
2014	1.3%	8.4%	1.5%	23.6%	19.1%
2015	1.4%	9.5%	1.8%	25.7%	19.0%
2016	1.5%	10.1%	1.9%	26.1%	18.6%
2017	1.6%	10.7%	2.0%	26.3%	18.6%
2018	1.7%	11.4%	2.2%	26.5%	18.6%
2019	1.8%	11.9%	2.2%	27.2%	18.1%
2020	2.0%	13.2%	2.5%	27.9%	17.4%
2021	2.0%	13.8%	2.6%	28.1%	16.0%
2022	2.1%	14.1%	2.7%	27.7%	15.4%
2023	2.1%	14.8%	2.7%	27.1%	15.3%
2023-2013	0.93%	6.89%	1.26%	3.53%	-4.10%
연평균	0.08%	0.57%	0.10%	0.29%	-0.34%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전체 교인 대비 장로의 비중은 1.2%에서 2.1%로 0.93%p 늘었으며, 권사는 6.89%, 안수집사는 1.26%p 늘어났다. 집사도 3.53%p 늘었는데 2013년도에 23.5%였던 교인 대비 집사의 비중이 2023년에는 3.53% 늘어난 27.1%이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2013년 전체 교인 수의 19.4%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학교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15.3%까지 줄어들었다. 2021년 전체 인구 대비 현재 0세부터 14세 인구의 비중은 11.8%인 것에 비한다면 아직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감소 속도보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표45〉 연도별 교회 내 직분자 비중 변화

연도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2013	3.3%	3.4%	22.5%	4.1%	66.6%
2014	3.3%	3.6%	23.2%	4.3%	65.6%

연도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2015	3.3%	3.6%	23.9%	4.5%	64.7%
2016	3.4%	3.7%	24.7%	4.7%	63.5%
2017	3.4%	3.8%	25.5%	4.8%	62.4%
2018	3.5%	4.0%	26.3%	5.0%	61.3%
2019	3.5%	4.0%	26.7%	5.0%	60.8%
2020	3.5%	4.1%	27.9%	5.2%	59.2%
2021	3.5%	4.2%	28.6%	5.3%	58.3%
2022	3.5%	4.4%	29.3%	5.5%	57.3%
2023	3.5%	4.4%	30.6%	5.6%	55.8%
2023-2013	0.22%	0.99%	8.11%	1.47%	-10.79%
연평균	0.02%	0.08%	0.68%	0.12%	-0.90%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교회 내 직분자들의 구성비 변화는 위 〈표32〉와 같다. 교회 내 직분자 중 교역자의 비중은 2011년 3.3%에서 3.5%로 0.22p% 늘어났다. 반면 장로의 비중은 3.4%에서 4.4%로 0.99%p가량 늘어났으며 권사와 안수집사는 각각 22.5%와 4.1%에서 30.6%와 5.6%로 8.11%p와 1.47p% 늘어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집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비중의 감소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013년 직분자 전체의 66.6%를 차지하던 집사의 비중이 2023년 현재 55.8%로 10.79%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무디어지긴 하였지만, 감소 추세는 여전하며 이는 교단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5. 목회 현장의 변화

교단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교세통계표〉를 매년 분석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목회 현장에 있다. 교회 수의 증가와 교인 수의 감소는 이제 일상화된 현상이며, 직분자의 증가에 못미치는 새신자의 증가 속도는

교회 현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표46〉 연도별 교회당 평균 기대치 변화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3	130.7	31.9	201.8	2.6	16.9	3.1	47.6	38.5
2014	116.2	28.0	178.5	2.5	16.9	3.2	45.9	34.0
2015	108.2	26.4	165.2	2.5	16.8	3.2	43.1	30.7
2016	107.0	24.5	161.6	2.6	17.4	3.3	42.4	30.0
2017	103.6	21.5	153.7	2.6	17.5	3.3	40.8	28.6
2018	104.1	21.6	154.4	2.6	17.6	3.4	41.0	28.7
2019	101.5	20.8	149.3	2.7	17.8	3.4	40.6	27.0
2020	97.8	16.0	137.8	2.7	18.2	3.4	38.5	23.9
2021	97.5	16.0	135.1	2.8	18.6	3.5	37.9	21.6
2022	97.0	16.0	133.6	2.8	18.9	3.5	37.0	20.5
2023	96.1	16.0	132.3	2.8	19.6	3.6	35.8	20.2
'23-'13	-34.7	-15.9	-69.5	0.3	2.8	0.5	-11.8	-18.3
연평균	-2.89	-1.33	-5.79	0.02	0.23	0.04	-0.98	-1.53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교단의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직분자 및 교회학교 숫자는 위 표와 같다. 2013년 교회당 평균 130.7명이던 세례교인은 현재 96.1명으로 34.7명이나 줄었다. 새신자는 동 기간에 31.9명에서 16.0명으로 15.9명이 감소하였고, 교인수 역시 201.8명에서 132.3명으로 연평균 70여 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수는 교회의 역량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고, 새신자 수는 교회의 역동성을, 교인수는 교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세례교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인적·물적 기여가 가능한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교회당 평균 장로 수는 2.6명에서 2.8명으로 0.5명이 늘었으며, 권

사는 16.9명에서 19.6명으로 2.8명이 늘었다. 안수집사도 3.1명에서 3.6명으로 0.5명이 늘었지만, 집사와 교회학교 학생 수는 각각 47.6명과 38.5명에서 35.8명과 20.2명으로 지난 2013년 이래 집사 수는 11.8명, 교회학교 학생 수는 18.3명이 감소하였다.

목사 1인당 평균 세례교인 수와 교인 수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 1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013년 목사 1인당 담당하는 세례교인은 82.1명이고 교인은 126.7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목사 1인당 세례교인 수는 57.8명으로 24.3명이나 줄었으며, 교인 수는 79.6명으로 47.1명이 감소하였다.

〈표47〉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수

연도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13	82.1명	-	126.7명	-
2014	72.7명	-9.38명	111.7명	-15.05명
2015	68.4명	-4.31명	104.4명	-7.24명
2016	66.9명	-1.46명	101.0명	-3.40명
2017	64.9명	-2.02명	96.3명	-4.76명
2018	64.9명	0.00명	96.3명	0.00명
2019	62.3명	-2.56명	91.7명	-4.57명
2020	59.9명	-2.39명	84.4명	-7.24명
2021	59.1명	-0.83명	81.9명	-2.54명
2022	58.4명	-0.69명	80.4명	-1.47명
2023	57.8명	-0.63명	79.6	-0.84명
2023-2013	-24.3명	-24.3명	-47.1	-47.1명
연평균	-2.02명		-3.93	

한편 2013년의 경우 교회당 사역하는 평균 목사수 는 1.6명, 전도사는 0.8명으로 2.4명의 교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목사 1.7명, 전도사 0.6명으로 2.3명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기간 목사는 0.1명이 늘고 전도사는 0.2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교단의 현황을 〈교세통계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은 통계치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야기되는 교회학교 공동화 등은 사회구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도가 되지 않기에 교회의 고령화가 가속되며 교회학교의 공동화가 급속히 발생하는 것이다. 기 성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신자가 교회에 유입되지 않음으로 봉사와 사역을 담당할 교회의 허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제117년차 총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도운동을 시작하였고 비록 한해의 결과이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음을 통계치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수천에서 수만 명씩 감소하던 교인 수가 2023년에는 1,000명 이내로 준 것은 분명 전도운동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118년차 총회장이 이를 이어받아 지속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교단의 특성화사업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결교회의 정체성은 분명 전도, 그것도 직접 전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며 보좌해야 할 총회본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점이 여기에 있다. 50여 년 전에 설계된 총회본부의 조직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지교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직은 조금 더 통합적이어야 하며 수행업무를 위한 유기적이며 유연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직원 개인의 능력은 곧 교단 발전의 가늠자라 할 수 있기에 직원의 계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단의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제출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제117년차 총회
주요 사업 보고

장년세대 부흥 프로젝트 보고
-성결전도플랫폼-

https://bbs.kehc.org/

1. 전도 플랫폼 개발 및 전도 콘텐츠 개발

가. 목적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도 자료개발 및 전도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공유를 통해 지교회가 원활하게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자료개발 및 제공 자료 내용

1) '한 영혼 전도 축제' 전도 자료 개발 및 제공

-태신자 작성에서 전도 결신까지 자료 패키지 제공

-행사기획안, 미디어 자료, 프로그램자료, 예배자료 등 공식 자료 개발 및 자료제공

-비전선포식부터 당일 행사 Q 시트, 행사 후 재초청 주일까지 기획안 제공

-현수막, 배너, 초청장, 카드뉴스 디자인 자료제공

2) 전도 설교문 및 설교를 위한 동영상 제공

-동기부여 설교: 10편

-전도파송 설교: 2편

-새신자 초청설교: 3편

-부활절 초청설교: 3편

-동기부여 동영상: 3편

-초청 간증 동영상: 6편('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링크)

-고난주간 전도 묵상 동영상 : 5편

다. 진행경과

1) 기초 기획: 7월 3일~14일(총회본부 실무자, 외부목회자, 전문위원)
2) 전도플랫폼 개발 및 전도 콘텐츠 개발 : 7월17일~8월18일
   -플랫폼 개발: (주)오직
   -콘텐츠 개발: 현장 목회자 4인(담임목사 1명, 부교역자 3명)
3) 전도 플랫폼 오픈 및 목회자 전도대 발대식:
   8월 21일, 11:00 총회본부
4) 콘텐츠 개발 회의 : 7월~10월 6회, 12월~2월 5회

라. 제공 자료

1) 문서 자료 : 행사 기획안 및 진행자료 문서 15건
2) 이미지 자료 : 포스터, 현수막, 초청장 등 50종 이상
3) 동영상 자료 : 비전메세지, 동기부여, 간증 동영상등 10여종

2. 국내선교위원회 협력 '전도전략세미나'

가. 주　　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전도로 부흥하는 성결교회

나. 참석대상: 전도를 실천하고 전도를 통해 부흥하기 원하는 목회자 및 사모

다.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일 시	장 소	지역	등록 및 참석인원
9월 19(화)	은평교회	서울, 경인, 중부	110명 등록, 130여명 참석
9월 21(목)	홍성교회	충청, 호남, 영남	160명 등록, 180여명 참석

라. 강　　사: 이춘오 목사(국선위원장), 유승대 목사(은평교회),
손성기 목사(새빛교회), 김기성 목사(하늘숲교회),
도강록 목사(퇴계원교회), 박창흥 목사(예수비전교회)

마. 일정표

시간	내용	담당
09:30~10:00	등록확인	
10:00~10:20	개회인사 및 기도	위원장 이춘오 목사
10:20~11:10	전도전략세미나1-목회의 본질, 전도 회복	유승대 목사/이춘오 목사

11:20~12:20	전도전략세미나2-생생한 전도현장의 실제	손성기 목사/김기성 목사
12:20~13:10	점심식사	
13:10~14:30	전도전략세미나3 -전도축제 선포에서 행사까지 5주간 실행방안	도강록 목사
14:30~14:45	휴식	
14:45~15:00	교회진흥원 사역안내	교회진흥원
15:00~16:20	전도전략세미나4-태신자에서 결신자까지	박창흥 목사
16:20~16:30	교단 전도플랫폼 안내	
16:30~16:40	합심기도 후 폐회	이성준 목사

바. 특 전

1) 현수막 2종 무료제공: 186교회 제공
   -전도축제를 위한 행사 현수막 1종, 복음의전함 캠페인현수막 1종
2) 복음의 전함 전도지(교회당 1,000매) 제공: 128교회 제공

3. 지방회 목회자 전도대 조직 및 활동보고

가. 목적

1) 초기 성결교회 구령의 열정 회복과 미래 자립교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 목회자들이 먼저 전도에 앞장서 평신도 전도 운동 확산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나. 경과

1) 활동기간: 23년 9월 ~ 24년 4월 말(8개월)
2) 23.08.21. 전도플랫폼 오픈 및 목회자 전도대 발대식 개최
   총 24개지방 / 29명 참석
   -성결전도플랫폼(전도자료실) 오픈
   -지방회별 목회자 전도대 구성, 총 30개 지방 452명
   (목회자 300명, 배우자 152명)
3) 지방회 목회자전도대 지원
   -서울남, 전주, 인천서 지방회 전체 모임 시 사역 소개 및 전도 강의(4회)
   -서울남 팀별 모임 시 전문위원 파견하여 강의 및 전도 지원(7회)
4) 전도일지 보고 현황(*별지참조)
   -지난 8개월간 35,534명의 사람을 만나 8,578명의 호의적인 사람

을 만났고 2,038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중 198명이 교회에 등록

5) 총회 시상 계획(제118년 차 총회 시 개인전도 시상과 함께 진행)
-대상: 우수 전도대 2곳(서울서, 인천서)
-상금: 전도대 각 100만 원씩(총 200만 원, 교단부흥발전비 예산 500만 원 中)

다. 평가

1) 목회자 전도대 목회자들의 구령의 열정 회복이 목회현장의 변화로 이어짐
2) 교회진흥원의 전도 강의 및 현장 전도지원으로 실질적 도움 제공
-서울남, 전주, 인천서지방회 전체 모임 시 사역소개 및 전도강의 → 파송사역 신청으로 연결
-서울남지방회 팀별 전도 시 전문위원 파견하여 강의 및 전도지원
3) 전도라는 이번 총회 정책사업의 취지가 전도대를 통해 목회현장에 잘 전달 됨
4) 전도자로 나선 목회자 202명이 198명의 새신자를 교회에 등록시켜 '한성도 한영혼 주께로'의 표어대로 이루어짐

라. 소 감

1) 서울서(안경호 목사)
-함께 전도를 시작해서 용기가 난다
-부흥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하게 됨
-전도를 시작하며 교회 예배 분위기가 활력을 갖게 됨
-설교 시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게 됨
2) 인천서(이병곤 목사)
-목전단과 함께하니 힘이나고 반응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 당연히 실천해야 할 복음전도에 탄력이 생긴다.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지역은 복음 전하는데 받아드리는 마음 밭이 좋았다.
-유원지였지만 생각보다 호응하는 분들이 있었다. 교회는 꾸준히 지역을 위해 필요를 채워 가야 함을 깨닫는다.
-복음을 전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기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는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번 주는 전도대원 몇 명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귀

한 분들을 만나도록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지역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전도할 때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대부분 호응적이나 강하게 거부자, 신천지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가가호호 전도는 여전히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영적 빌드업을 해야겠다

3) 서울남(이규승 목사)
-목회자들이 먼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정체성이 확립됨
-전도가 정말 기쁘고 보람이 넘쳐 설교에 반영되고 평신도 전도로 이어짐

4) 충남(김유훈, 설광동, 김제희 목사)
-목사의 정체성 확립과 개교회의 비전 향상
-함께하니 전도가 쉬워졌고 전도의 기쁨을 경험
-농촌지역이라 대부분 노인들이며 즉시로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 필요

5) 서울동(김규훈 목사)
-함께 기도하고 전도 나가니 큰 힘이 됩니다.
-전도하기 전 기도제목과 응답을 나누며 감사하게 됨
-초청할 기회를 만드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기쁩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6) 경기남(윤태진 목사)
-오랜만에 재개되는 전도의 현장 자체가 감사했고, 더욱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여서 큰 힘을 낼 수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 가정방문을 하며 전도했는데, 시골 정서상 반응이 좋았다. 은혜교회의 토양화의 결과인 것 같다.
-복음을 전할수록 있어서 좋았고,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교구로서 목회자연합전도를 할 수 있어 좋았다.
-전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다. 은혜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섬김의 영향력이 입소문 나 있어서 전도하기 수월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들었다. 현장 복음제시가 중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났다.

7) 경인(이해수 목사)

-지역과 영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지역으로 나가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신천지역에 있는 신천중앙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냉랭함을 느끼면서 사회적인 현상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자의 사명감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기도할 것이다.
-전도지역이 주택단지인 데 반하여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눈이 내리고 추워진 날씨 때문이기도 하고 지역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미용실, 세탁소 등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따뜻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전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대원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도지를 받아주고 받지 않더라도 웃으면서 거절하는 지역이어서 전도가 재미있게 즐거웠다고 말했다.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싸늘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러기에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더 희망적이라는 말들을 한다.

8) 광주
-동역자교회에서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4. 성결 전도 대상 시상

■ 전도기간: 2023년 6월 1일~2024년 4월 30일
■ 보고기간: 2024년 5월 1일~10일

구분	순위	지방회	교회	성명	직분	방문	등록	세례	점수
서울	1	서울중앙	신길	서순애	권사	131	131		393
	2	서울중앙	신길	이창숙	집사	91	91	4	285
	3	서울중앙	신길	유충규	장로	55	55		165
	4	서울중앙	신길	양영분	권사	53	53		159
	5	서울	삼성	유창근	장로	90	21	3	141

구분	순위	지방회	교회	성명	직분	방문	등록	세례	점수
광역	1	대전중앙	대전	박미현	사모	69	69	15	252
	2	인천서	행복한북성	양창성	집사	44	40		124
	3	인천남	한신	표영매	권사	29	20		69
	4	인천남	한신	지현숙	집사	21	21		63
	5	부산서	대연	이정숙	권사	14	14		42
중소	1	전주	바울	김선희	권사	76	64	2명	210
	2	청주	서문	김재유	장로	46	44	2명	150
	3	경기중앙	목감	정영민	권사	51	46		143
	4	전남서	우리주소망	장신순	목사	40	41	3명	131
	5	경기남	비전	김말순	권사	23	23	8명	123
농어촌	1	강원동	진부	신경호	장로	61	58	3명	186
	2	경북	군위	김화자	권사	58	58		174
	3	경북	군위	안창분	집사	51	51		153
	4	경북	군위	신명희	권사	25	25		75
	5	경북	군위	박애자	권사	22	22		66
	5	경남서	거창	이순자	집사	24	21		66
직할	국내	제주직할	청수	조인호	집사	14	5		24
	해외	유럽직할	도르트문트	오현숙	집사	8	8	1명	27
합계						505	472	18명	

※ 점수계산법: (전도인원(방문)×1점)+(등록인원×2점)+(세례인원×3점)

5. 제117년차 성결교회 전도 대상 목회자전도대 수상자 명단

■ 전도기간: 2023년 9월 1일~2024년 4월 30일

■ 보고기간: 2024년 5월 1일~10일

지방회	목회자 참가		배우자 참가		1인 평균 전도 시간	전도 보고 횟수	총 전도한		결과			복음을		교회 등록
	평균	누적	평균	누적			시간	사람	호의	애매	불호	대상자	수용자	
서울서	17	780	4	171	3.0	45	2,853	8,007	782	1,397	2,937	322	184	47
전남서	3	525	3	258	1.5	231	1,175	7,824	1,356	239	904	3,753	844	62

지방회	목회자 참가		배우자 참가		1인 평균 전도 시간	전도 보고 횟수	총 전도한		결과			복음을		교회 등록
	평균	누적	평균	누적			시간	사람	호의	애매	불호	대상자	수용자	
전남중앙	1	166	1	26	2.5	116	480	9,543	4,732	3,145	2,529	1,223	714	39
인천서	11	196	2	38	2.0	16	468	2,969	721	349	246	315	224	22
서울남	68	136	20	40	2.0	2	352	938	406	118	117	17	4	2
충 남	82	166	30	61	1.5	7	341	80	45	23	15	13	7	2
서울동	4	47	1	14	3.0	12	183	3,480	144	1,531	1,045	186	22	11
경기남	4	30	4	25	3.0	7	165	612	90	51	91	47	18	4
경 인	7	42	2	12	2.0	6	108	1,031	162	260	279	21	9	2
광 주	5	35	1	7	2.0	7	84	1,050	140	470	310	71	12	7
합 계	202	2,123	68	652	22.5	449	6,209	35,534	8,578	7,583	8,473	5,968	2,038	198

※ 전도일지를 보고한 지방회에 한함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제117년차 총회
주요 사업 보고

다음세대 부흥 프로젝트 보고
-THE NEXT WAVE-

https://thenextwave.kehc.org/

1. 목적

가. 다음세대 전도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 교회에서 실제적인 전도에 참여하도록 한다.

나. 교회별로 전도대회를 실행하도록 전도 매뉴얼을 제공한다.

다. 교회 규모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라. 지역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를 연계한다.

2. 개요

가. 명칭: NEXT WAVE: 넥스트 웨이브(https://thenextwave.kehc.org/)

나. 내용 및 일정

1) NEXT WAVE 전도 플랫폼 구성: 2023년 7월

2) NEXT WAVE 전도 매뉴얼 구성: 2023년 7월-9월

3) NEXT WAVE 전도 무브먼트 전개: 2023년 10월~2024년 2월

4) NEXT WAVE 전도 결산 및 교단 시상: 2024년 3월1일 '성결교사 대상 시상

다. NEXT WAVE 상세내용

1) NEXT WAVE 전도 플랫폼 구성

-전도 매뉴얼 제공

-전도 프로그램 제공: 페스티벌 자료

-전도 프로그램 공유: 개교회 참여(공유 이벤트)

-NEXT WAVE 전도 홍보 자료 제공 및 공유: 사례 나눔, 챌린지

2) NEXT WAVE 제공 전도 자료

-NEXT WAVE Festival 매뉴얼:
전체 진행개요, 각 부서별 행사기획안

-NEXT WAVE 전도 이미지 자료: 포스터 , 현수막, 전도카드등

-NEXT WAVE 프로그램 자료

유아교회: 아이만나, 아이맛나, 찾아가는 가정전도, Mother's Day, 말씀놀이터

어린이교회: 학년데이, 반별데이트, 153전도특공대, 새친구반, 간식버스

청소년교회: 교복데이, 당근마켓, 플리마켓 전도

라. The Next Wave 시상 및 지원

1) 목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전도에 힘쓰고 있는 제117년차 교단 표어에 발맞춰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교회로 격려하기 위해

-성결교회 다음세대가 전도를 통해 부흥할 수 있도록

2) The Next Wave festival 전도비 지원

-다음세대 전도에 힘쓰는 재적 100명이하 교회

-The Next Wave Festival 참가 신청 및 전도플랫폼에 실행결과 공유시 지원

-교회당 50만원지원 5교회 지급

지 방 회	교 회	참 가 부 서
세종공주	대 흥	유년, 고등부
청 주	궁 평	영유아부
서울 강남	남 서 울	어린이, 청소년부
세종공주	세 종	어린이, 청소년부
세종공주	평 강	청 소 년 부

3) The Next Wave 모범 전도교회 및 모범 전도자 시상

-2023년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전도교회 및 전도자 시상

-모범교회

▌2023년도 한 해 영유아부서~청소년부서(0~19세) 전도에 힘쓴 교회

▌2022년 12월 말 기준 재적교인 100명 이하, 100~500명 이하, 500명 이상 구분해서 심사

-모범 전도자

▌2023년도 한해 동안 영유아부서~청소년부서(0~19세) 전도에 열정적인 교인(사역자 및 평신도)

-심사 및 시상

▌기간: 2023. 1. 1~12. 31

▌전도대상: 영유아부서 ~ 청소년부서(0~19세)

▌전도기준: 새신자교육 수료 및 4주 이상 출석한 인원

▌심사기준: 접수된 추천서에서 등위 심사, 재적교인별 차등 심사

▌심사위원: 교육부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

▌시상식: 제9회 성결교사대회 폐회예배시

-시상내역

▌모범전도교회: 총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3교회

지방회	모범 전도교회	비 고
청 주	아 이 사 랑	재적 100명 이하 교회/ 전도인원 54명
전 북	익산흰돌 학생회	재적 100~500 교회/ 25명
충 서	서 산	재적 500이상 교회 / 156명

▌모범전도자: 총회장상 및 상금(1등 50만원 1인, 2등 30만원×2인, 3등 30만원 1인)

	지방회	교 회	모 범 전 도 자	전도인원
1	충 서	서 산	송 영 숙 권 사	47명
2	청 주	아이사랑	박진구/박혜주 어린이	8명
	충 서	한 내	복 윤 의 권 찰	8명
3	경남서	상 남	최 재 영 학 생	7명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 회 행 정

제117년차~제119년차
(2023년~2025년)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에 따르면 행정을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의 기능을 단순히 정책집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책형성과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단헌법 제79조(설치목적)에 따르면 총회본부의 존재 이유를 ① 총회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 ② 총회장의 통솔 하에 내외의 모든 업무를 총괄 ③ 총회의 결의사항과 위임 사항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118년차 총회본부는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 전심(全心)으로”라는 표어 아래 총무를 중심으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을 기치로 다음과 같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1. Superior & Speedy: 탁월한 업무처리와 지체함이 없는 행정

총회본부를 찾는 방문객은 크게 항존위원회나 의회부서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지교회의 건축이나 매매 등을 위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총회가 위임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총회본부 담당 국장과 직원이 총무의 지도하에 기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행정문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모든 업무는 ‘기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공사가 중요하듯 한 장의 기획서를 제작하는 일은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 그리고 이후 조치까지의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기획서를 읽는 누구나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껏 총회본부는 신입 직원을 위한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시행하지 못했다. 미처 자신의 업무를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실무에 투입되어 실수를 통해 업무를 배우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또한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 원활한 인계인수를 할 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총회본부 OJT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서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기안 작성과 담당하는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심화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한다.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행정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필요한 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비한 행정 사항들을 보완하여 적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2. Maintenance & Manual: 점검하며 기록하여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행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표준이다. 지방회는 총회의 행정을 본보기 삼아 업무를 진행하며 지교회는 그 지방회의 행정을 본받는다. 따라서 총회본부가 적확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교단 전체가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총회본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세심한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무사안일한 행정은 결국 실수를 낳게 된다. 총회본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실무직원들의 상호 확인을 통해 세밀함이 살아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총회본부 행정의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관공서 수준으로 끌어올려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하겠다.

3. Advanced & Assistance: 지방회와 지교회를 돕는 행정

총회본부는 교단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방회와 지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회본부는 지방회와 지교회의 행정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울 의무가 있다. 4국 1과의 직원들이 지방회와 지교회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4. Research & Realize: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정책 수립'이다. 모든 정책은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국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총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선교국과 교육국은 지 교회의 필요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중대형교회부터 작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5. Timely & Trendy: 시의 적절한 행정

모든 행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발 앞서 길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회, 지교회와 총회본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 목회사역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회 행정에 참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

2023년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구호 모금 결과 보고

2023년 5월 28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구호 모금 결산 보고

■ 모금기간: 2023년 2월 15일~4월 11일

■ 참 여 수: 개인 24명, 단체 7개, 교회 540개

■ 결 산 액: 1,218,155,348원

수입부		지출부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총 모 금	1,218,155,348원	기 관 송 금	1,204,570,000원
		광 고 비	7,000,000원
		현 지 답 사 비	6,585,348원
합 계	1,218,155,348원	합 계	1,218,155,348원

■ 기관별 송금 내역

	기부지정단체	1차 송금액	2차 송금액	송금 총액	참 고
1	굿네이버스	3,570,000원	0원	3,570,000원	
2	글로벌비전	30,368,000원	69,632,000원	100,000,000원	
3	기아대책	14,500,000원	85,500,000원	100,000,000원	
4	사마리안퍼스	6,000,000원	0원	6,000,000원	
5	월드비전	13,841,000원	186,159,000원	200,000,000원	
6	초록우산원주지부	1,000,000원	0원	1,000,000원	
7	한국교회봉사단	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8	박주현선교사	0원	60,000,000원	60,000,000원	신길교회지정
9	한국교회총연합회	0원	440,000,000원	440,000,000원	
10	(재)기감유지재단	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1	튀르키예선교부	0원	184,000,000원	184,000,000원	교단선교부
	합 계	69,279,000원	1,135,291,000원	1,204,570,000원	

※ 2차 송금액 중 2~10번(₩951,291,000원)은 한국교회총연합에 지정 기탁

(사)한국교회총연합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THE UNITED CHRISTIAN CHURCHES OF KOREA

수신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님 귀하
참조 : 총무
제목 : 튀르키예 지진 돕기 사업 진행 중간보고의 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단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회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귀 교단으로부터 구억 오천 일백 이십 구만 일천원(951,291,000원)을 후원 받은 바,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아 래 -

1. 본회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튀르키예교회협의회(TEK)와 한국인사역자협의회(KLAC)와 협의하였으며,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지원 상황은 첨부한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 튀르키예 구호사업 1차 중간보고서
첨부2 : 튀르키예 중간결산 보고서(1)
첨부3 : 튀르키예 중간결산 보고서(2) 《끝》

대표회장 : 장종현
주 소 : 우)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연락처 : 02)744-6200 / (F) 02)744-6202 / 문자전용 : 010-7440-6202
이메일 : ucck6200@gmail.com / 홈페이지 : ucck.org
총 무 : 엄진용 이영한 / 서 기 : 김순귀 / 회 계 : 조세영

시행 :한교총 제07-066호 시행일자 :2024.05.07 사무국장 :이상택 사무총장 :신평식 / 공개

한국교회총연합
튀르키예 구호사업
1차 중간보고서

2024년 4월 9일

굿피플 글로벌전략실

Ⅰ. 사업 개요

1. 개요

사업명	2023년 튀르키예 지진피해 재건복구 사업		
추진 목표	2023년 2월 6일에 발생한 7.8, 7.5의 2차례 강진 피해 지역의 재건복구 사업을 위해 한교총(이하 '한교총')에서 추진하는 튀르키예 지진구호 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굿피플인터내셔널(이하 '굿피플')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 2. 튀르키예 개신교연합회(TeK) 및 튀르키예 한국인사역자협회(한사협)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복구를 지원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회와 NGO 굿피플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우선함		
사업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03월 (예정)		
사업 규모	한화 3,184,750,000원		
주최	한국교회총연합(UCCK)		
사업 수행단체	**굿피플 인터내셔널**	**법인등록번호**	**116121-0008702**
이사장	이영훈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0
대 표	김천수 회장	**전화번호**	02.783.2291
실무책임자	글로벌전략실 권지나 실장	**팩스번호**	02.783.2294
실무자	글로벌전략실 김재수 대리	**이메일**	globalstrategy@goodpeople.or.kr
단체 주요 사업	• 해외사업: 보건의료사업, 교육지원사업, 식수위생사업, 소득증대사업 • 국내사업: 아동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 나눔사업: 히어로레이스, 사랑의희망박스, 굿피플의료봉사 • 인도적지원사업		

2. 개별 사업 예산

(환율: $1 = 1,327.5원)

	사업명	달러	원화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400,000	531,000,000
2	알티노주 지진피해 가정집 4채 건축사업	$500,000	663,750,000
3	알수스 한국마을(KCT) 건축사업	$753,012	1,000,000,000
4,5	말라티아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301,204	400,000,000
6	말라티아 한국마을(PCK) 문화센터 건축사업	$225,903	390,000,000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 사업	$150,602	200,000,000
	합 계	**$2,330,721**	**3,184,750,000**

※ 굿피플 행정비 미포함

3. 개별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성과물	담당기관	수혜기관	현지담당자	모니터링	사업기간(안)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 2층 주택 1채 • 3가구 입주	TeK	디리수 재단	Cem/ Bedri	김대희	23/11-24/09
2	알티노주 지진피해 4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 단층주택 4개 • 4가구 입주	TeK	예수그리스도 재단	Selim/ Bedri	김대희	23/11-24/11
3	알수스 한국마을(KCT) 건축사업	• 2층 주택15채 • 30가구 입주	AFC	AFC	장성호	장성호	23/11-24/10
4,5	말라티아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 교육센터	쿠툴루시 재단	말라티아 구원교회	Ihsan/ Bayram/ Jeffrey	강현아	23/11-25/03
6	말라티아 한국마을(PCK) 문화센터 건축사업	• 커뮤니티센터	튀한교류 협회/PCK	말라티아 주정부	박용덕 김명섭	김명섭	23/11-24/04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 사업	• 임시거주18채 • 임시교실 2채	튀한교류 협회	말라티아 주정부	박용덕 김명섭	김명섭	23/11-24/06

* 당초 4, 5번 사업은 각각 다른 쿠툴루시재단 사업이었으나, 쿠툴루시재단과 한교총의 동의 후 4, 5번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함

4. 사업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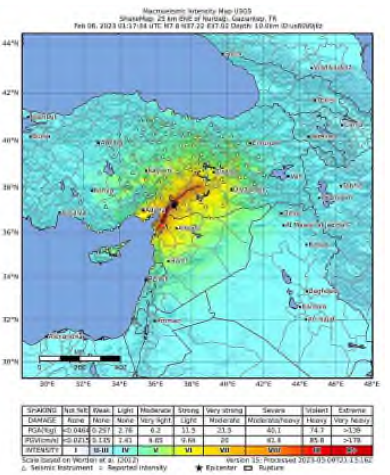
목 록	관 계	이해관계 내용
튀르키예 개신교연합회(TeK)	협력 및 조정	사업의 조정 역할
Tabita(TeK 긴급구호위원회)	협력 및 조정	TeK 산하 위원회로 한교총과 업무협약 체결
튀르키예 한국인 사업자 협의회(한사협)	협력 및 조정	사업 초기, 한교총과 TeK의 조정 역할을 하였음
AFAD(튀르키예 재난청)	협력 및 조정	튀르키예 재난관리 총괄
디리수(Dirisu) 협회	협력 및 조정	1번 사업비 송금 및 사업 조정(이사장 베드리)
앙카라 쿠툴루시(Kutulus) 협회	협력 및 조정	4,5번 사업비 송금 및 사업 조정(이사장 잇산)
말라티아 주정부	협력 및 조정	6번, 7번 사업 수혜자 선정 및 행정 절차 지원
튀한문화교류협회	협력 및 조정	6번, 7번 사업비 송금 및 정산, 결과보고
이스켄데룬 성경교회	수혜자	1번 하타이 이스켄데룬 수혜 기관, 정산 및 결과보고
알티노주 예수그리스도 재단	수혜자	2번 하타이 알티노주 수혜 기관, 정산 및 결과보고
AFC	수혜자	3번 하타이 아수스 수혜 기관, 정산 및 결과보고
말라티아 쿠툴루시(Kutulus) 교회	수혜자	4,5번 말라티아 수혜 기관
한국마을(PCK) 주민	수혜자	6번 말라티아 수혜자
지진피해 이재민	수혜자	7번 말라티아 수혜자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	수혜자	7번 말라티아 수혜 기관

Ⅱ. 사업 추진 배경

1. 지진 발생 경과

가. 2023. 02. 06. 현지시간 오전 4시 경,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 가지안테프 인근 모멘트 규모 7.8, 7.5의 2차례 강진 발생

나. 2023. 02. 21. 모멘트 규모 6.4, 5.8 지진 및 총 6,000여번의 여진 발생



7.8 지진의 감지 진동 분포

다. 튀르키예 정부는 피해가 큰 10개 지역에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4단계 경보를 발령함

▸ 재난지역 선포: 가지안테프, 하타이, 말라티아, 카흐라만마라쉬, 아드야만, 샨르우르파, 킬리스, 아다나, 디야르바르크, 오스마니에

2. 지진 피해[1)]

가. 사망자 수: 58,042명(튀르키예 50,783명, 시리아 7,259명)

※ 21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 사망자가 5번째 많은 지진으로 기록

나. 부상자 수: 119,204명(튀르키예 107,204명, 시리아 12,000명)

다. 피해 건물 수: 약 35만 채

라. 피해 금액: 한화 약 109조원 추정

마. 지진 피해 인구: 약 910만명, 국내 실향 이재민 약 300만명

※ 240만명이 임시거주지 생활, 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함

1) [출처]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 시리아 보건부 및 시리아 화이트 헬멧 (2023.7.12. 현지시간 기준)

Ⅲ. 사업 추진 경과

1. 전체 추진 경과

가. 굿피플은 2023년 11월 **1차 튀르키예 출장(11.15~11.25)**을 통해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확인 및 미팅하고 사업 내용을 파악하였음

나. 출장 이후 **2024년 1분기** 기간 동안 굿피플은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현지의 법적 근거 서류 준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제한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함

- ㅇ 예멘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및 연초 성수기로 인한 수에즈운하 통과 절차가 어려워지면서 기자재 구입에 차질을 발생함
- ㅇ 부가가치세, 최저임금(49%)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지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약 70%까지 증가하여 건축재료비와 기자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2)]
- ㅇ 튀르키예 라마단 기간(3.10~4.8), 라마단 후 축제(4.9~4.12)로 인한 사업추진 영향
- ㅇ 현지 사정으로 인한 개별 사업 지연
  - [1], [4,5] 건축부지 선정을 위한 협회 총회 승인 등 부지선정에 시간 소요
  - [2] 수혜기관의 재단 등록 지연
  - [3] 사업 사업담당자와 한교총 간 사업 내용 협의 중으로 사업비 송금 보류

라. 2024년 1분기 주요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 사업의 진행률은 약 36.7% 임

	사 업 명	주요 추진 내용	진행률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사업계획, 업무협약체결, 건축부지 조사	20%
2	알티노주 지진피해 가정집 4채 건축사업	사업계획, 업무협약체결, 수혜기관 재단 등록 추진	20%
3	알수스 한국마을(KCT) 건축사업	사업계획, 업무협약체결, 상수도·울타리 공사 완료 건축도면	20%
4,5	말라티아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사업계획, 업무협약체결, 건축부지 조사	20%
6	말라티아 한국마을(PCK) 문화센터 건축사업	문화센터 건축 및 기자재 설치 완료, 중간보고서 작성, 종료보고 예정	80%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 사업	컨테이너 13동(학교 2동, 주민 11동) 설치 완료, 중간보고서 작성, 학교지원 계획	60%

※ 진행률: 사업계획 완료 20% / 부지준비 완료 40% / 사업시작 60% / 사업완료 80% / 사업보고 완료 100%

2)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2024.01.05.), 알파경제 보도(2024.03.05.)

2. 개별 사업 추진 경과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가. 사업 지역: 하타이 이스켄데룬(Hatay Iskenderun)

-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하타이 이스켄데룬은 인구 24만명 중 99% 무슬림이고, 약 5천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함. 지진피해가 심한 곳이며 지진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짐

나. 사업목표: 지진으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세(3) 가족과, 고아인 남아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

다. 사업내용: 3세대 2층 주택 건축

라. 추진경과

- 수혜자 Cem목사 가정이 속한 교회는 법인체가 아니므로 TeK의 회장이자 Tabita 위원장인 베드리(Bedri Peker) 목사가 속한 예수그리스도디리수협회와 업무협정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함
- 굿피플 현지 출장 시 건축 부지 예정 장소를 방문하였으나 토지 주인의 변심으로 새로운 건축 부지를 조사하여 검토 중임
- 건축물 소유는 예수그리스도디리수협회로 등재 예정. 이를 위해 협회는 2024년 4월 20일 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고 권한을 베드리 목사에게 위임할 예정임
- 협회 총회 이후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 예정이며 동시에 건축회사 비교 견적을 통해 건축업체를 선정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사진1. 하타이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사진2. 이스켄데룬 이해관계자 미팅

사진3. 건축 부지 예정 장소

2 알티노주 지진피해 가정집 4채 건축사업

가. 사업지역: 하타이 알티노주(Hatay Altinozu)

- 튀르키예 동남부에 위치한 하타이 알티노주는 동남부의 시리아 국경에 맞닿아 있는 도시이며 인구는 약 60만 정도임. 1,350명을 수용하는 시리아 난민 캠프가 있고, 안디옥 그리스 정교(Rum Orthodox)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

나. 사업목표: 알티노주 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4가정을 선발하여 파손되었던 그들의 집이 회복 및 마련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함

※ 입주자들의 원래 거주지가 회복되고 마련된 후 돌아가면, 그들이 살던 주택들은 지역주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봉사센터로 사용될 예정임

다. 사업내용: 가정집 주택 4채 건축

라. 추진경과

- 굿피플은 2023년 11월 튀르키예 현지 출장을 통해 건축 부지를 확인하였으며 가정집 4채는 재단법인 명의로 하기로 협의함. 출장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체결을 완료함
- 알티노주 예수그리스도교회는 현재 재단법인 등록 절차 중에 있으며 당초 2024년 3월까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등록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바 4월까지 진행이 안 될 경우, 베드리 목사가 속한 협회(디리수 협회) 이름으로 주택을 건축할 예정임
- 재단등록 절차 진행과 동시에 건축업체 비교견적을 위한 건축업체를 현재 조사 중이며, 건축업체 선정 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약 8개월 소요 예상)

사진1. 하타이 알티노주 지진피해

사진2. 알티노주 이해관계자 미팅

사진3. 건축 부지 예정 장소

3 알수스 한국마을(KCT) 건축사업

가. 사업지역: 하타이 알수스(Hatay Altinozu)

- 알수스(Arsuz)는 지진피해가 가장 심했던 하타이주에 속해 있는 해변 도시로 38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통계에 따르면 99,48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지진 후에 안타키야, 이스켄데룬 등 주변 도시에서 이재민들이 몰려와 현재는 약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나. 사업목표: 하타이 지역, 특히 안타키야(과거 안디옥) 지역의 지진피해 이재민들에게 반영구적 조립식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와 협력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진피해 가정들을 위한 가정집을 제공함

다. 사업내용: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8,135m^2)에 2층 조립식주택 15채 가정집(총 30호 건축) 건축

라. 추진경과

- 2023년 11월 굿피플 현장 방문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AFC와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음
- AFC는 하타이 주정부와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 단, 토지는 무상임대 기간은 5년으로 반환 조건이 있으며 대개 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저렴한 시세(10~20%)로 임대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에 불법 농작물을 발견하여 시청과 중재하에 합의 처리하였고 2024년 1월 토지 측량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함
- 2024년 2월 공사를 위한 전기 수도 및 기본 시설을 정부 측에 요청하였고 부지에 펜스를 설치한 후 비교견적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후 대금지급, 토지 정리 및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AFC와 한교총 간 사업 내용 협의 중으로 사업비 송금을 보류함

사진1. 무너진 하타이 안타키야 교회

사진2. 건축 부지 토지 측량

사진3. 건축 부지 펜스 설치

4,5 말라티아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가. 사업지역: 말라티아(Malatya)

- 말라티아 도시는 튀르키예 동부 아나톨리아(Anatolia) 지역에 있는 말라티아주의 수도이며, 말라티아주는 튀르키예의 동부와 서부 사이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이 많은 도시임. 2007년엔 3명의 순교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로 알려져 있음

나. 사업목표: 지진방지 건축 자재로 만든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여 지진 재발 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및 모임의 장소로 활용함

다. 사업내용: 커뮤니티센터 건축

라. 추진경과

- 굿피플의 2023년 11월 현지 출장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앙카라 쿠툴루시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말라티아 주정부는 지진 이후 2024년 연초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조절하기 위해 건물 건축을 통제하였으나 이후 통제를 완화함
- 현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지상과 지하가 연결된 구조)과 2층의 가정집 1호인데 지진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교회와 가정집 1호를 판매하고 교회를 포함한 커뮤니티센터 건축을 하고자 하며 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음
- 건축물은 잇산(Ishan Ozbek) 목사가 대표로 있는 앙카라 쿠툴루시 재단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건축 부지 선정 및 절차를 위해 교회 대표들과 성도들이 논의 과정에 있음(4월 말 확정 예정)

사진1. 지진으로 균열이 생긴 교회 건물

사진2. 말라티아 쿠툴루시 교회 입구(입구에 경찰 부스가 설치되어 있음)

사진3. 부지 후보(폐건물, 철거 후 건축 필요)

6 말라티아 한국마을(PCK) 문화센터 건축사업

가. 사업지역: 말라티아(Malatya)

-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말라티아는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으로 인한 장애 및 트라우마 환자로 확정된 이재민들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PCK)에서 202동 컨테이너를 지원하여 약 8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한국마을을 조성함

나. 사업목표: 말라티아에 설치된 컨테이너 임시거주촌인 한국마을 내, 말라티아 시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 344m^2 면적에 문화센터를 건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장애 및 트라우마 환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위기 상황 대처 역량 및 능력을 갖추도록 함

다. 사업내용: 문화센터 건축 및 어린이 놀이방, 강의실, 교사 휴게실,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게 하고 책걸상, 프로젝터, 음향 장치, 에어컨, 냉장고 등 기자재를 제공함

라. 추진경과

- 2023년 11월 굿피플 현지 출장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튀한문화교류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완료함
- 이스켄데룬의 한국마을(튀르키예 한인회 후원) 문화센터의 건축을 담당했던 마라선(MARA S 인테리어) 업체가 건축업체로 선정이 되었음
- 건축부지는 말라티아 시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12월 문화센터의 기초공사, 골조공사, 지붕공사, 전기공사를 시작으로 1월에는 페인트 완료, 2월에 문화센터 건축과 전기 및 수도공사를 완료하고 3월에 기자재 설치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

마. 추진경과 사진

사진1. 굿피플-튀한문화교류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진2. 사업부지 전경

사진3. 부지 시멘트 공사

사진4. 문화센터 골조공사 (2023.12.24.)

사진5. 문화센터 지붕 골조공사 (2023.12.28.)

사진6. 문화센터 지붕 샌드위치 판넬공사 (2023.12.28.)

사진7. 문화센터 칸막이 공사 (2024.01.03.)

사진8. 문화센터 외벽공사 (2024.01.13.)

사진9. 문화센터 내부공사 (2024.01.13.)

사진10. 문화센터 타일, 창호공사 (2024.01.20.)

사진11. 문화센터 타일, 창호공사 (2024.01.20.)

사진12. 문화센터 주방가구 공사 (2024.02.05.)

사진13. 문화센터 화장실 공사 (2024.02.05.)

바. 문화센터 완공 사진

사진1. 문화센터 입구 왼편

사진2. 문화센터 입구 전면

사진3. 문화센터 입구 반대편 및 옆면

사진4. 문화센터 야간

사진5. 문화센터 대강당 – 접이식 책상

사진6. 문화센터 대강당 – 시네마 스크린

사진7. 문화센터 강의실(1)

사진8. 문화센터 강의실(2)

사진9. 문화센터 어린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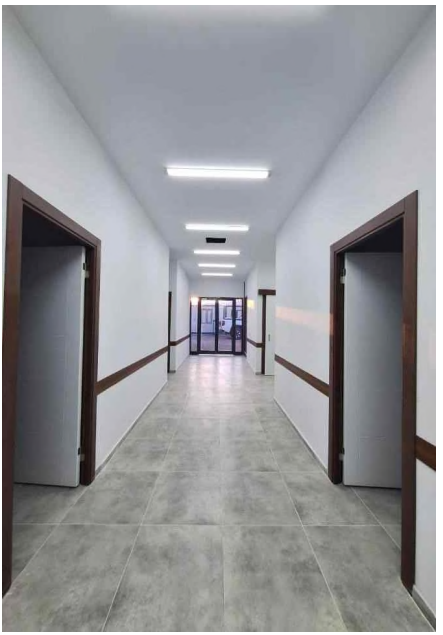


사진10. 문화센터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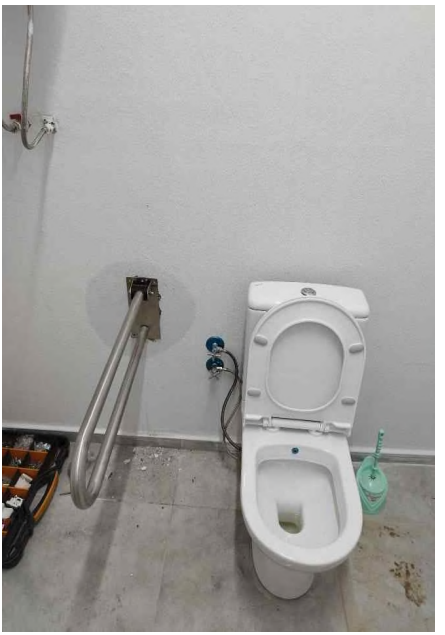


사진11. 문화센터 화장실 장애인용

사진12. 문화센터 부엌

사진13. 문화센터 회의실

사진14. 노트북 및 충전

사진15. 시스템 믹서기 및 보관함

사진16. 문화센터 영상 스크린

사진17. 문화센터 음향기기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 사업

가. 사업지역: 말라티아(Malatya)

-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하고 82만명이 거주하는 말라티아는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지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 1,237명, 부상자 수 60,500명이며, 전체 건물의 1/3이 붕괴되거나 손상되었음. 이로 인해 건물 3개 중 1개를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임

나. 사업목표: 튀르키예 지진으로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 중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말라티아 도시 외곽지역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인근 학교 교실 및 교육환경 조성공사를 지원하여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학생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사업내용: 말라티아 도시 외곽지역 이재민을 선정하여 컨테이너 임시거처와 생활가전 및 가구를 제공하고, 학교에는 컨테이너 교실 2동 및 교육환경 조성공사를 지원함

라. 추진경과

- 2023년 11월 굿피플 튀르키예 출장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튀한문화교류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완료
-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 18동 및 학교 교실을 위한 컨테이너 2동 구입 완료
- 말라티아 주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외곽지역 주민들의 임시거주지 수요조사를 말라티아 시청에서 담당하였으며 11가정을 선정하고 11동 지원 완료. 현재 7가정을 선정 중에 있으며 확정 후 컨테이너 임시거주지 제공 예정. 한편 컨테이너 제공과 동시에 난방을 겸한 에어컨, 온수기, 인덕션, 냉장고 등 생활가구 및 가전 지원. 또한 임시거주지 지원 수혜 가정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2회 예정
-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에 컨테이너 2동을 배치하였으며, 추후 학교 난방시설 공사, 페인트 공사, 지붕공사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 예정임

마. 추진경과 사진

사진1. 텐트 거주 지진피해 가정

사진2. 지진피해 가정집 철거

사진3.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 방문 및 이해관계자 미팅

사진4. 호흡기에 해로운 난로를 사용하는 학교

사진5. 학교 내 배수로

바. 임시거주지 설치 및 학교 지원 중간결과 사진

사진1. 임시거주지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배송

사진2. 임시거주지 컨테이너 모습

사진3. 임시거주지 내부 가구(냉장고, 온수기, 싱크대, 소파 등) 설치

사진4. 임시거주지 내부 가구 소파 조립

사진5.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 설치(1)

사진6.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 설치(2)

Ⅳ. 사업비 중간 결산

1. 전체 사업비 결산

(2024.4.9. 현지 송금 기준)

	사업명	예산(천원)	집행(천원)	집행률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 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	531,000	200,008	37.7%
2	알티노주 지진피해 가정집 4채 건축사업	663,750	-	0%
3	알수스 한국마을(KCT) 건축사업	1,000,000	-	0%
4.5	말라티아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	400,000	200,008	50.0%
6	말라티아 한국마을(PCK) 문화센터 건축사업	390,000	390,016	100.0%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사업	200,000	181,481	90.7%
사업비 총계		**3,184,750**	**971,513**	**30.5%**

2. 월별 집행 내역

사업예산(천원)	1월(천원)	2월(천원)	3월(천원)	4월(천원)	합계(천원)	집행률
3,184,750	457,684	90,008	400,016	181,481	971,513	30.5%

Ⅴ. 향후 계획

1. 사업 중간 점검 및 수혜자 인터뷰를 위한 굿피플 2차 출장

가. 일시: 2024.4.22. ~ 5.1.

나. 목적: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수혜자 인터뷰

-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 방문
- 튀르키예 재건복구 사업 관련 정부 및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미팅
- 튀르키예 재건복구 사업 모니터링 및 수혜자 인터뷰
- 1차 보도자료 준비

2. 2분기 내 건축 착수 및 완료된 사업 결과보고

가. [1], [2], [3], [4,5]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계획 수립, 착공

- 현지 상황에 따른 건축이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2분기 내 모든 사업의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나. [6]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 결과보고 준비

다. [7]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 추진

- 지진피해 이재민 11가정 임시거주지 컨테이너 지원 완료하였으나 7가정 선정
- 18가정에 대한 생필품 2회 지원
- 하늠문치프트리이파티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성 공사. 끝//

[별첨] 「튀르키예 지진피해 재건복구 사업」 주요 추진 일정 1부

[별첨] 「튀르키예 지진피해 재건복구 사업」 주요 추진 일정

일시	내용
2023.09.22.	한교총, 굿피플 **1차 회의**
2023.09.27.	한교총, 굿피플에 튀르키예 구호사업 기본계획(7개 사업) 공유
2023.10.13.	한교총 TF팀, 굿피플 **2차 회의**
2023.10.24.	굿피플, 튀르키예 한사협 온라인 ZOOM 회의
2023.10.27.	한교총 – 굿피플 간 MOU 체결
2023.11.06.	한교총, 예장총회 도농사회처, 굿피플 **3차 회의**
2023.11.07.	굿피플, 한교총에 1차 사업계획서(안) 제출 및 송금 요청 **1차 사업비(15억원) 입금**
2023.11.15. ~11.25.	굿피플, 튀르키예 현지 출장
2023.11.16.	[6] 말라티아 한국마을 문화센터 건축사업 1차 사업비(약 23만불) 송금
2023.11.30.	**2차 사업비 및 1차 행정비(1,749,487,500원) 입금**
2023.12.22.	한교총, 굿피플 **4차 회의**
2024.01.09.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사업 1차 사업비(12만불) 송금
2024.01.11.	**3차 사업비 및 2차 행정비(94,500,000원) 입금**
2024.02.01.	한교총, 굿피플 **5차 회의**
2024.03.07.	[6] 말라티아 한국마을 문화센터 건립사업 2차 사업비(67,532불) 송금
2024.03.13.	[1] 이스켄데룬 지진피해가정 보금자리 건축사업비 1차 사업비(20만불) 송금
2024.03.13.	[4,5] 쿠툴루시 커뮤니티센터 건축사업비 1차 사업비(20만불) 송금
2024.03.27.	한교총, 굿피플 **6차 회의**(한교총 사무총장 굿피플 방문)
2024.04.09.	[7] 말라티아 이재민 임시거주지 및 학교지원사업 2차 사업비(18,550불) 송금

긴급구호(튀르키예) 중간결산 보고서

(2023.02.15~2024.04.18)

한국교회총연합

수입 합계	5,194,744,112
1. 후원금	**5,184,416,852**
1) 교단 18교단	5,133,047,79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1,500,000,000
기독교대한감리회	1,000,000,0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951,291,0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500,000,000
기독교한국침례회	414,573,794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350,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90,000,000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00,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60,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42,408,0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	6,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5,640,000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	5,000,000
그리소도의교회협의회	3,2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2,235,000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1,2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1,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500,000
2) 교회 19개	39,538,000
잠실새내교회	20,286,000
순복음중동교회	7,000,000
참사랑교회	3,000,000
풍성한 교회외	1,557,000
중앙대학교대학교회	1,390,000
참포도나무교회	1,000,000
서수원중앙교회	1,0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아멘교회	700,000
건국대학교병원교회	500,000
충신교회	500,000
영광제일교회	500,000
민속촌순복음교회	450,000
대구일심교회	400,000
새서울교회	375,000
고창동산교회	290,000
하복대순복음교회	280,000
예수가족교회	160,000
삼전교회	100,000
초안교회	50,000
3) 기타(개인) 91건	11,831,058
2. 기타수입	**10,327,260**
1) 기타수입	8,637,280
2) 이자수입	1,689,980

지출 합계	5,194,744,112
1. 지정기탁	**1,337,864,794**
1) 기독교한국침례회	414,573,794
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511,291,000
글로벌비전	69,632,000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10,000,000
박주현선교사	60,000,000
월드비전	186,159,000
한국교회봉사단	100,000,00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85,500,000
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0,000,000
튀르키예 파송선교사	200,000,000
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2,000,000
5) 예수교대한성결교회	20,000,000
시리아난민구호	10,000,000
튀르키예선교사(예성)	10,000,000
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0,000,000
굿피플	90,000,000
7)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100,000,000
글로벌케어	100,000,000
2. 사업비	**3,856,879,318**
1) 사업비	3,253,987,500
굿피플	3,253,987,500
2) 업무추진비	39,393,732
1차 답사비용	33,053,321
진행비(회의비 및 홍보비)	6,340,411
3) 추가사업비(지출예정)	563,498,086
굿피플	100,000,000
Church Towm	100,000,000
현지 공사현장 방문 및 백서제작비	60,000,000
행정비 및 긴급구호예치	303,498,086

한국교회봉사단

Korean Diakonia 한국교회봉사단

unesco

수 신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임석웅 목사님
참 조 : 총무 문창국 목사님
제 목 : 한국교회봉사단 2023년 2월 튀르키예 7.6지진 피해 복구 지원 사역 보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도 7.8 최강의 지진으로 6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30만체 이상의 가옥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이 13년간 내전으로 인한 시라아의 지진 피해 상황은 시리아-레바논 개신교총회(NESSL)를 통해 2024년 4월 기준 18개 교회 1034가정에 대한 피해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2. 그동안 한국교회봉사단은 튀르키예 지진 재해 구호를 위하여 2023년 8월 7일~12일까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송홍도 총회장 이순창 총회장 김순귀 총무 외 4명) 대표단과 함께 튀르키예 현지를 방문하여 튀르키예개신교회협의회(TeK 회장 알리 목사 / 186개 개신교회 연합회)와 지진 재난 중심지역에서 재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남부교회협의회(GÖK 회장 베닷 외젤 목사/ 20개 개신교회협의회)및 튀르키예한인사역자협의회(KLAC 회장 장성호 목사) 3단체가 참여하는 '한국교회총연합 1차 튀르키예 현지 답사팀'의 활동을 통해 향후 재난 지원 복구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귀국 후 한국교회총연합은 튀르키예개신교회협의회(TeK 회장 알리) 동남부교회협의회(GÖK 회장 베닷 외젤 목사) 튀르키예한인사역자협의회(KLAC 회장 김성일 목사)를 통해 다비타 재건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재건 프로젝트 중 7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한국교회봉사단은 튀르키예 지진 지건을 위한 사업으로 말라티아와 디야르바르크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크툴리시교회와 연합하여 엘라즈(에덴 동산 발원지) 지역에 디아코니아센터 건축(현지교회 20만불, 한국교회 15만불, 총 35만불)을 위한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리아 지원에 관련해서는 시리아-레바논개신교총회(NESSL)를 통하여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4분기로 나누어서 1034가정을 지원(50만불)하는 '에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 귀 교단에서 후원해 주신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구호 모금액 사용 결과 보고 요청의 건(문서번호: 사무 제 439-5호 시행일시 2024.4.29.)은 현제 한국교회총연합과 튀르키예 개신교교회 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7개 지역 다비다 프로젝트'와의 중복 사역을 피하고 동남부교회협의회(GÖK)가 제한 한 '튀르키예 재난 재해 지원 복구 디아코이니센터'를 지진 지역인 엘라즈 지역에 설치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 한국교회봉사단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통해 후원 받은 지원금 1억원 사용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첨 부 :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구호 모금액 사용 결과 보고서. "끝".

한 국 교 회 봉 사 단

총 재 김 삼 환
이 사 장 오 정 현
대표단장 김 태 영

담 당 이미선 사무총장 김철훈 대표단장 김태영 이사장 오정현
시 행 한교봉 2024 - 44 (2024. 05. 03) 접수 ( )
우 편 (0312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www.koreandiakonia.org
전 화 (02) 747-1225 / 팩 스 (02) 764-1225 / 이메일 kd@koreandiakonia.org / 공개

별첨)

재해구호 (튀르키예 • 시리아) 중간 결산

번호	지출	금액
1	튀르키예 동남부교회협(GÖK)교회 재난 지역생존키트 200개 전달	24,000,000
2	시리아 지진피해 현장 긴급식료품 전달 '에덴 프로젝트1' 실시	30,000,000
3	'튀르키예 재난재해 지원 복구 디아코이니센터" 지원 (재난 재해 물류지원 창고형 센터 및 신앙공동체 게스트하우스)	46,000,000
	소 계	**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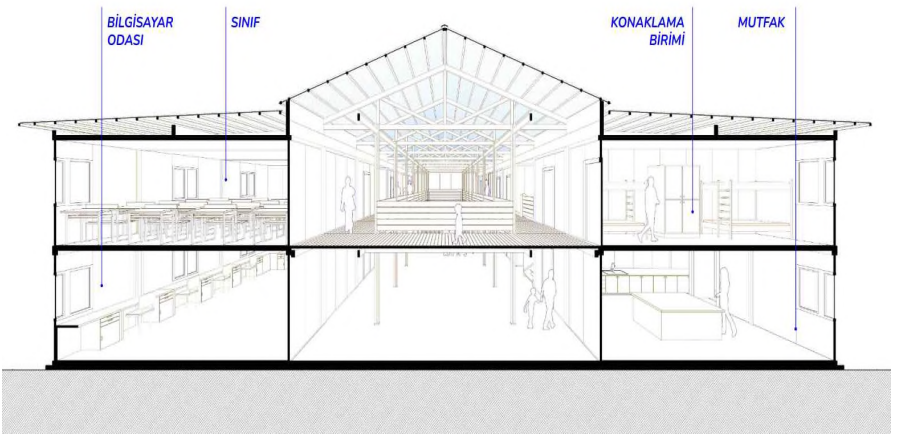
시리아-레바논 개신교총회(NESSL) 지지진피해 교회 구호 [에덴 프로젝트해] (18교회 1034가정) 지원계획

NO	NESSL 교회	수혜자수(가정)	각 가족당(월 $30)	각 가족당 (월 ₩1,332)
1	이인 알 시리아	15	$ 5,400	₩ 7,192,800
2	알레포	117	$ 42,120	₩ 56,103,840
3	아미르 엘 호슨	15	$ 5,400	₩ 7,192,800
4	비나이스	15	$ 5,400	₩ 7,192,800
5	다마스쿠스	125	$ 45,000	₩ 59,940,000
6	페이루지	40	$ 14,400	₩ 19,180,800
7	가사니에	22	$ 7,920	₩ 10,549,440
8	하파르	13	$ 4,680	₩ 6,233,760
9	하사키	35	$ 12,600	₩ 16,783,200
10	홈스	132	$ 47,520	₩ 63,296,640
11	이들립	23	$ 8,280	₩ 11,028,960
12	콰메슬리	50	$ 18,000	₩ 23,976,000
13	카라바	78	$ 28,080	₩ 37,402,560
14	라타키아	140	$ 50,400	₩ 67,133,800
15	말키에	35	$ 12,600	₩ 16,783,200
16	마하디	100	$ 36,000	₩ 47,952,000
17	나바크	4	$ 1,440	₩ 1,928,080
18	야제디에	75	$ 27,000	₩ 35,964,000
	총계	**1,034**	**$ 372,240**	**₩ 496,000,000**

	시리아-레바논 개신교 총회 재난 지원 관리 비용		
1	운송/리소스/ 회계 및 감사 비용 등	37,224	
	총 예산	409,464	₩ 545,406,048

1. 엘라즈 GAPCK-KM(공동커뮤니티센터)- 35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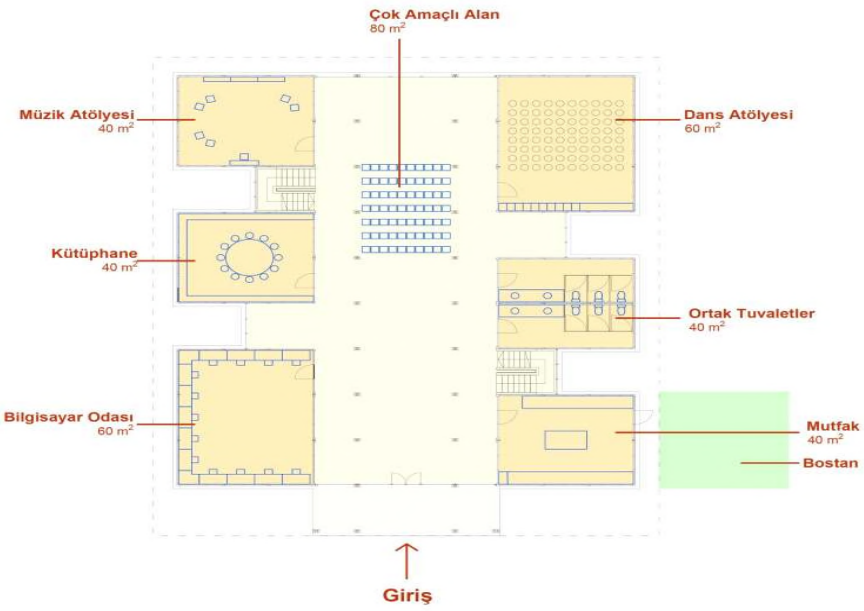
구조는 3x7m 컨테이너 20~28개로 구성 됨. 다층 구조로 설계. 중간에 종교시설 및 다양한 문화행사 콘서트등 다용도 이벤트 공유 마당. 빌딩 시스템으로 컨테이너 위의 목재 캐리어 트러스 시스템 및 태양광 시스템 설치 운영 자체적으로 자립 시스템 구축. 자립 경제활동 공간 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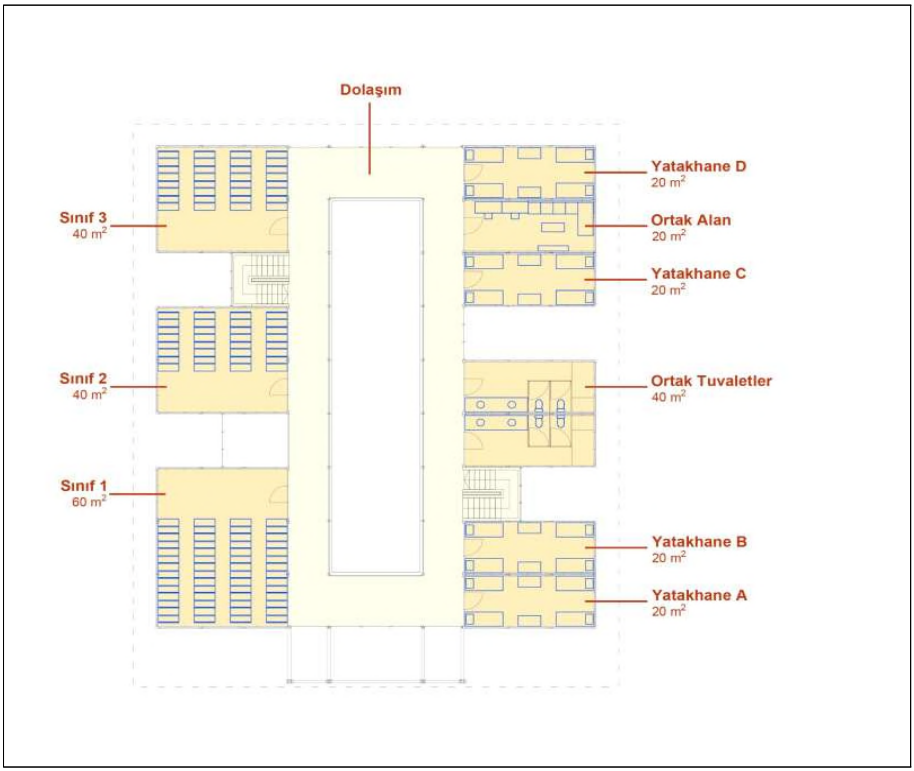


총 컨테이너 수: 20~28개 총 컨테이너 면적: 280 m² 총면적: 434m²

공용 화장실 -최대 1개 유닛 5인용(컨테이너 2개) 도미토리C -8인실(컨테이너 1개) 교회/교육시설 공용 공간 -8명 (컨테이너 1개) 기숙사 D-8인실(컨테이너 1개) 등 다용도 시설 및 교육공간 확보

KOMÜNİTE MERKEZİ


Çok Amaçlı Alan
80 m²
Müzik Atölyesi
40 m²
Dans Atölyesi
60 m²
Kütüphane
40 m²
Ortak Tuvaletler
40 m²
Bilgisayar Odası
60 m²
Mutfak
40 m²
Bostan
Giriş


Dolaşım
Sınıf 3
40 m²
Sınıf 2
40 m²
Sınıf 1
60 m²
Yatakhane D
20 m²
Ortak Alan
20 m²
Yatakhane C
20 m²
Ortak Tuvaletler
40 m²
Yatakhane B
20 m²
Yatakhane A
20 m²

(사)글로벌비전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문서번호 글24-0503
수 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참 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
제 목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사업 진행보고**

주 안에서 문안드리며 귀 교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본회는 지난 해 4월 귀 교단으로부터 튀르키예 긴급구호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2. 본회는 튀르키예 현지의 지진 복구지원 단체들의 지원사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초기 지진발생 긴급구호 활동에 이어 지난 해 6월 이후부터는 2단계 복구에 최소 2~3년이 걸릴 것에 대비하여 다수의 피해지역 이재민 수에 비해 소규모의 긴급생필품 구호는 실제적인 도움의 필요성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 겨울을 대비하여 피해규모가 컸던 아드야먄(Adiyaman) 지역에 천막과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복구사업에 집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 그러나 현장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지원한 천막 지원사업이 폭우와 강풍 등으로 파괴되고 날아가는 등 장기적인 사용이 불가하다는 현지 진행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업을 다시 수정하여, 지난 해 11월부터 새로운 대상 지역을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하떠이(Hatray) 지역에 지진으로 붕괴된 알튼오즈 초등학교의 복구사업과 학교복구에 필요한 소규모의 도서관 건축지원 사업을 돕는 것이 성결교회에서 지원하신 정해진 규모의 지원예산을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NGO 사업원칙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이 학교의 정상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복구사업을 서둘러 지원하여 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400여 명의 인근 지역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사업진행이 목표했던 금년 1월 말 겨울방학 시작 이전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1) 지진피해 지역에 외국에서 지원자금이 들어오는데 대해 은행 수수료와 세금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20%를 차감한다는 현지 정부의 외환 정책에 따라 구호활동 단체들에 대한 과도한 경비지출로 지원예산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이해가 불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통한 별도의 전달 방식을 취하는데 지연이유가 있으며, 2) 그동안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실제 지원예산의 감소로 인해 본회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으며, 3) 선교사들의 본국 업무로 한국 방문에 따른 현지 진행일정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 본회는 목표한 알튼오즈 초등학교의 복구사업을 총회에서 저희 기관에게 맡겨주

신 귀한 사명과 책임으로 감당하고자 최대한 3개월 후인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총회에 즉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연되고 있는 현장 진행과정에 대해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귀 교단과 함께 앞으로도 성결교단의 특수전도기관으로서 균형 있고 발전적인 글로벌 NGO로서의 보다 높은 역량을 쌓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별 첨 : 튀르키예 알튼오즈 초등학교 복구사업 요청서 및 진행계획서. 끝.

2024. 5. 3.

사단법인 글로벌비전 이사장 정 연 우
교회협력위원장 이 대 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3동 604호, 글로벌비전 ☎ 02) 3143-4001 / Fax 02) 3143-4707 / www.globalvision.or.kr

튀르키예 지진 현지 복구지원 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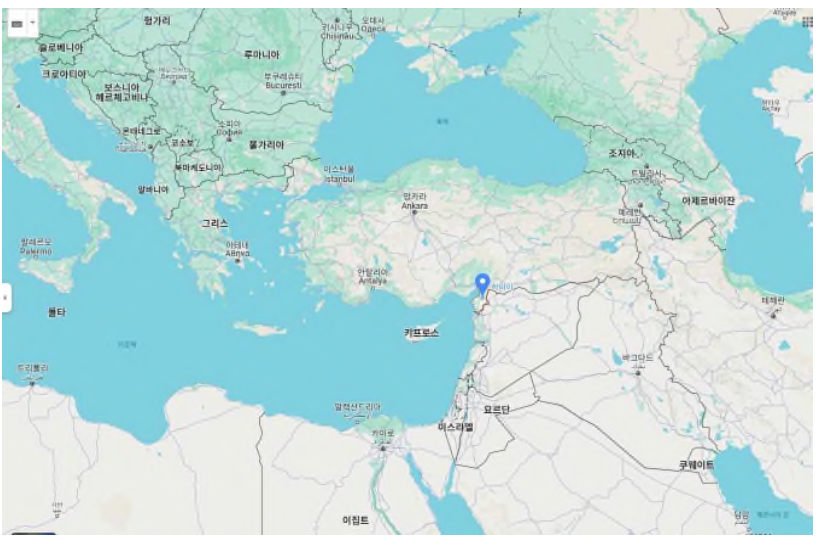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건은 시내의 거의 모든 건물은 참혹하게 무너졌고 사람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일부 복구되었으나 아직 1년이 되도록 많은 문제들로부터 스스로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한순간에 배움의 기회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다. 다니던 학교가 무너져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고 학교 건물이 온전하다면 사람들이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어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곳이 많다.
교과서도 학용품도 없고, 입을 옷과 신발마져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 현장을 떠나지 못한 학생들은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해외 다른 나라들의 지원 노력도 있었지만 튀르키예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떠이 (Hatray) 지역

지진 피해때 가장 피해가 컸던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을 시리아의 안디옥이라 불렀다고 한다. 아직 이곳은 시라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랍어를 함께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 지역을 본회가 선택하게 된 것은 튀르키예 내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지역으로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등 대도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알튼오즈 초등학교 복구사업

이 하떠이 지역에서 우리는 알튼오즈 초등학교 복구지원사업을 첫 번째 후보 지역으로 판단하고 현지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곳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 올리브 농사를 주로 하며 생활하였던 곳이다.
이곳에 현지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피해 초등학교를 소개받게 되었다.

알튼오즈 초등학교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기 시작하다가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평소 250명이던 학생이 지진 후 갑자기 40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둘러 학교 건물을 완공하여 학생들을 받고자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의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만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목사님 아들 등 이 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곳의 병설 유치원의 물품도 교사의 아버지 차로 기증받은 물품을 실어 왔다고 했다. 이곳의 교장 선생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 학교 아동들의 필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소규모 도서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Ⅰ 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

1KR=44원 / $1= 1.380원

항 목		예 산			비 고
		KRY	$	WON	
1. 붕괴학교 건축지원	붕괴된 교사 일부 건축지원	900,000	28,696	39,600,000	진행 중
	교실 의자 (100개)	140,000	4,464	6,160,000	
	교무실 책상 (17개)	50,000	1,594	2,200,000	
	소 계	1,090,000	34,754	47,960,000	
2. 도서관 건축	단층 도서관 건축	700,000	28,696	30,800,000	진행 중
	도서관 선반 (10m)	60,000	1,913	2,640,000	
	도서관 테이블 (6인용 4개)	72,000	2,296	3,168,000	
	도서 지원	30,000	957	1,320,000	
	소 계	862,000	33,862	37,928,000	
3 진행관리	현장 방문 진행관리 출장비	136,363	4,348	6,000,000	일부 진행
	현지 인력(선교사) 활동비 지원	113,636	3,623	5,000,000	일부 진행
	행정비 및 외환수수료	31,363	1,000	1,380,000	진행
	소 계	281,362	8,971	12,380,000	
4. 사후관리	현장 방문 모니터링	-	3,623	5,000,000	
	소 계	-	3,623	5,000,000	
총 계				₩103,268,000	

※위 예산은 2023년 9월 작성 예산으로 환율변화 등 실제 차액 발생할 수 있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 회 본 부